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MIT 슬로언 '코리안 바비큐 나잇' 10초만에 티켓 완매

웹사이트 폭주, 한국문화 행사에 지대한 관심 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 8일 MIT 경영대학원 슬로언(Sloan) 한인학생회 주최의 '코리안 바비큐 나잇' 의 티켓 판매 웹사이트가 접근 폭주로 인해 다운되고 한 시간 후 웹사이트가 다시 열리자 180장이 단 10초만에 매진되었다. 한국문화 행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열성적인 관심과 반응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난 16일 목요일 한식당 야수에서 열린 '코리안 바비큐 나잇' 은 MIT 슬로언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의 밤(Korea C-Function)' 행사 중 하나로 한국의 식(食)문화를 알리고자 기획된 이벤트다. 매년 200여장의 티켓이 30초 이내로 매진되며 올해는 예

년보다 더욱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주목을 끌었다.

티켓을 구매하는 데에 성공한 학생들은 '코리안 바비큐 나잇' 뿐 아니라 다가올 여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슬로언의 한 영국인 학생 개럿 바즈(Gareth Vaz)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한국만의 독특하고 신나는 슬로언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슬로언 친구들이 강력 추천하는 굉장한 이벤트" 라며 바비큐 나잇에 앞서 들뜬 마음을 표했다.

멕시코에서 온 슬로언 학생 엔리케 피누엘라(Enrique Pinuela)는 행사 전날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워낙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행사여서 꼭 가보고 싶다" 고 전했다. 이어 이 행사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해 "MIT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권을 보여주고 나누는 큰 축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며 "12월에 있을 한국 문화의 밤에도 꼭 참석할 것" 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야수에서 열린 MIT 슬로언의 '코리안 바비큐 나잇' 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음식과 대화를 즐기고 있다

총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갈비와 다양한 한국식 요리를 선보이며 쌈 싸먹는 방법부터 비빔밥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대형 스피커를 빌리고 디제이 부스를 설치하여 모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6일에 있을 한국 문화의 밤 행사(Korea C-Function)는 미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한국음식과 문화를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행사에는 MIT 슬로언 커뮤니티의 재학생, 가족, 교수 등 매년 약 7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다. 특별히 작

년에는 사이의 인기를 힘입어 교내에서 50여명 이상이 대규모 플래시몹을 준비하기도 했으며 외국인들도 대거 참석한 케이팝(K-pop) 댄스 콘테스트도 열린 바 있다. 매년 최고의 문화 행사라는 극찬을 받는 행사로 올해도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2, 화2, 1523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불박이 책꽂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하버드 김두연 박사 연구팀, 알츠하이머 걸린 뇌세포 배양 성공

알츠하이머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 최초 증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 유전학 및 노화연구팀 소속 김두연 박사(하버드 의학 대학원)와 루돌프 탄지(Rudolph Tanzi)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 알츠하이머에 걸린 뇌세포를 배양하는 데에 성공해 의료, 과학계에 한 획을 그었다.

기존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세포 배양에 성공한 사례들은 뇌세포 변화인 아밀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와 신경섬유매듭 혹은 탱글(Neurofibrillary Tangle)을 재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김 박사의 연구팀은 유전자 공학을 통한 줄기세포 및 삼차원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최초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탱글 구성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인 '베타

아밀로이드' 를 줄기세포를 통해 최초로 증명하여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은 1980년대 미국 신경외과학자 조지 글레너 박사가 제안한 가설로 뇌신경세포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플라크가 형성되면 뇌신경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탱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탱글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탱글 형성에 번번히 실패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실린 바 있다.

김 박사는 연구의 성공 요인으로 '발상의 전환' 을 꼽았다. 그는 "다른 연구팀들이 뇌세포를 배양하는 데에 주력한 반면 우리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세포변화를 배양 모델에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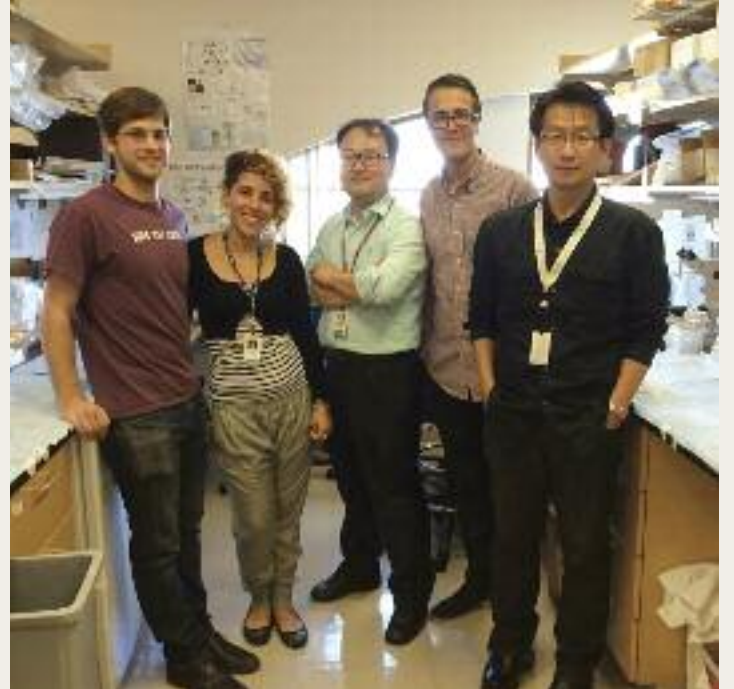
뉴욕 소재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in New York)의 샘 갠디(Sam Gandy) 박사는 "이 발견은 완전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우리 연구실

에서 실험해 볼 생각에 흥분된다" 며 성공적인 결과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탄생된 모델은 알츠하이머 약물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델은 기존의 알츠하이머 생쥐나 동물 뇌세포에 비해 약물 실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김 박사는 식품의약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1200종의 약물과 제 1상 임상실험이 끝난 5000종의 약물들을 탄지 박사와 공동으로 현재 모델에 실험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현재 모델이 뇌와 같은 환경을 완벽히 구상했다고 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의 증가(Gliosis)가 뇌세포의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뇌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 cell)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전했다. 김 박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량된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두고 김 박사는



뇌세포 배양에 성공한 김두연 박사(가운데)의 연구팀, 가장 오른쪽이 최세훈 박사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며 "보스톤 지역에는 워낙 뛰어난 한인 연구자가 많아 앞으로도 좋은 연구 결과 소식을 접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전기 생리학 연구에 도움을 준 김승규 박사(Children's Hospital)과 함께 새로운 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한상 박사(UNC of Char-

lotte), 연구에 대한 여러 조언을 준 서재홍 박사(MGH)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며 연구의 공을 돌렸다.

이 연구의 공동 제1저자로는 김 박사와 같은 연구팀 소속인 최세훈 박사, 한국 기초 지원 연구소 소속 김영혜 박사가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짓 폭탄 신고 한인 하버드대생 형사처벌 피할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폭발물 위협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던 한인 하버드대생 엘도 김(김일도, 21세)이 기소전 전환프로그램(Pretial Diversion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은 지난 10일 금요일 김 군의 형사처벌을 18개월 연기하고 기소전 전환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방안을 허용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식적인 사죄와 4개월 동안 집에 구금, 750시간의 봉사활동 이행, 당시 출동했던 여러 기관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포함된다.

검찰청은 김 군이 이와 같은 조

건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행 실패 시에는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김 군의 변호사 엘리슨 버로스(Allison D. Burroughs)는 김 군이 제시된 조건들을 모두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버로스 변호사는 김 군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학업의 경쟁에 치여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총명한 학생을 테러리스트로 바라보지 않은 점에 감사하다”는 김 군의 심정을 언론에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청의 결정에 “폭탄 협박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치고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지난 12월 하버드대 폭발물 소동을 일으킨 엘도 김

” 하는 의견이 다분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김 군은 기말고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폭탄 신고를 해 캠퍼스 일부가 폐쇄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간호사협회 무료예방접종 및 신장검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와 보스톤 한인교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가 오는 11월 2일 일요일 브룩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무료 감기예방 접종과 신장검사를 제공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스톤 지역 전문의료원과 메디컬 스쿨 학생 등 약 20여명이 간단한 검사와 함께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무료 감기예방 접종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신장검사는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연구팀이 직접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즉석에서 의사가 분석, 상담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홈페이지

(www.koreannurses.org)를 참고하면 된다.

진료일정

일시: 2014년 11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한국문화의 밤’ MIT내 가장 인기 있는 문화행사

▶▶1면에 이어서

학생들의 기대가 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총괄하는 백승민 씨는 “한국인 커뮤니티는 라틴 커뮤니티와 더불어 슬로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공동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니크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학교 커뮤니티가 하나되게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 씨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보스톤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과 관심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한국 학생회 스폰서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MIT 커뮤니티에 홍보를 원하거나 한국 학생회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 사전 연락을 통해 행사 당일 스폰서

특별 부스 설치 및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물에 로고나 링크 추가가 가능하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mitsloankoreaclub@gmail.com 혹은 646-421-0535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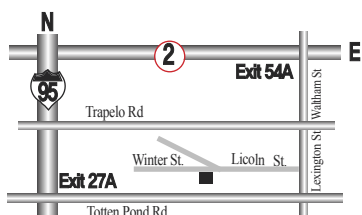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2세들의 성공담 나누는 제2회 차세대 포럼

시민협회 주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군)는 오는 11월 1일 토요일 하버드 로스쿨에서 제 2회 차세대 포럼(The Second Annual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Young Leaders Symposium)을 개최한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What is it mean to be a Korean American in 2014)”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미국 사회 진출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재미한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현재 미국의 주류 정치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한인들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시민협회는 이를 격려하고 권장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명(도이치 포스트 DHL 국제 무역법 담당부 부회장 제임스 민,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사무총장



제2회 차세대 포럼이 11월 1일 하버드 로스쿨에서 열린다

윤경, 버지니아 주 헌든 구 의원 그레이스 한 울프, 뉴욕대학교 치과대학교수 라이언 승주 리, 필라델피아 차관보 지방검사 데이비드 립, 맥과이어 우즈(McGuire Woods LLP) 변호사 셴 킴)의 재미한인이 초청연사로 강연을 한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첫 포럼에는 한인 차세대를 비롯해 한인 단체장 및 시민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재미한인으로서 사명을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샘윤 미주한인협회의(CKA) 회장, 하나 송 Link 회장 등 미 정계, 학계, 의료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7명의 한인들이 초청연사로 강연을 한 바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홈페이지(<http://kacl-ne.org>)를 참조하면 된다. 포럼 관련 문의사항은 임균택 사무차장 (kyuntaek001@gmail.com) 혹은 이경해 회장 (kayleebrokers@ao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
 장소: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WCC 2036 Milstein East B), 158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bostonkorean@hotmail.com

코트라 뉴욕 지재권센터 보스톤서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서혁진 박사등 강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코트라 뉴욕 지재권센터(Intellectual Property Desk)가 오는 17일 금요일 레지던스 인 보스톤 캠프리지 (Residence Inn Boston Cambridge)에서 지식재산권 설명회 및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위한 기본법과 지재권, 투자 등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로 진행된다. 특히 삼성벤처스의 서혁진 박사가 스피커로 참석하며 전반적인 행사 기획과 관계자 섭외 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날 초청된 스피커는 서혁진 박사를 비롯해 설리번&워체스터(Sullivan&Worcester)의 크리스틴 영 법무 자문위원, 엔젤 인베스터(Angel Investor)의 리디아 스크로터 대표, 비즈데브(Biz Dev.)와 CO에브리웨어(Anywhere)

디렉터 맬키 고, 아쿠토(Aquto)의 수지 라일리 대표가 있다.

행사 관계자는 “지식재산권과 각종 기업운영 관련 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창업 전문가로부터의 생생한 조언과 실속 있는 창업성공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행사 등록은 다음 링크(<https://www.eventbrite.com/e/essentials-of-startup-law-dialogue-with-entrepreneurs-and-investors-tickets-13638797009>)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juhn.kotra@gmail.com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8시
 장소: 레지던스 인 보스톤 캠프리지 매리엇 호텔(Residence Inn Boston Cambridge Marriott Hotel, Six Cambridge Center), 120 Broadway, Cambridge, MA 02142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저소득 여성 무료 의료 통역사 과정 모집

자격증 트레이닝, 직업 소개, 교통비 등 모두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파운드인 트랜슬레이션(Found in Translation)은 영어와 다른 한 가지 언어의 능통 구사가 가능한 저임금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통역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11월 30일까지 지원자 모집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랭귀지 액세스 펠로우십(Language Access Fellowship)으로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환자에게 의

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동시에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임금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통역사 자격증(Medical Interpreter Certificate)을 위해 내년 1월 말부터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트레이닝 후 견습기간과 직업 소개를 보장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트레이닝 동안 아이를 위한 보육시설, 교통편, 멘토링 등도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신청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는 파운드인 트랜슬레이션 홈페이지(www.found-in-translation.org)를 통해 알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출신 태권도선수 에디 정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도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우스터(Worcester) 출신 태권도 선수 에디 정(Edward Jeong, 19)이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내셔널 챔피언십 품세분야에서 우승을 거두고 오는 10월 3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도전한다.

정 선수는 뉴잉글랜드태권도협회 회장이자 우스터, 슈즈버리(Shrewsbury)에 위치한 US태권도센터의 정제형 그랜드마스터의 차남으로 3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 일찍이 겨루기에서 두서의 성과를 거두던 중 품세전문 선수로 전환하여 2011년 주니어 올림픽 챔

피언 등급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지난 2월 미국오픈 챔피언십(US Open Championship)에서 금메달을 따낸 정 선수는 미국 태권도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내셔널 챔피언십 품세분야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거두고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멕시코 아카스칼리엔테스에서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이산가족 다큐멘터리 '이산자' 아리랑 채널 방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문화와 음악으로 접근한 다큐멘터리 '이산자(The Separated)'가 한국 채널 아리랑 TV에서 지난 14일, 오는 21일 총 2주에 걸쳐 방영한다.

휴전 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61년, 고향을 가슴에 묻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이산자'는 이들의 삶과 분단 조국의 역사를 문화와 음악으로 재해석한다.

1부 '끊겨진 귀향길, 48번 국도'는 지난 14일 화요일 방영되었으며 2부 '떠나온 자의 후회, 실항의 노래'는

오는 21일 화요일 방영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이산자'는 아리랑 채널(www.arirang.co.kr)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방영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권지한국학교

이정욱 교사와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출연한다. 이정욱 교사는 22일 방영되는 2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보스톤의 음악 프로듀서로 등장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10월 30일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보스톤 출신 태권도 선수 에디 정(왼쪽)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푸드트럭, 보스톤의 길거리 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국에 포장마차가 있다면 보스톤에는 푸드트럭이 있다. 밥이 될만한 음식이나 주스, 디저트 등을 파는 푸드트럭이 다양하게 운영되며 잘 알고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대학교 앞,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등 30여 곳을 순회하며 영업하므로 정보 없이 무작정 찾아간다면 기대하는 푸드트럭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보스톤 시에는 총 52개의 푸드트럭 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스톤 시 웹사이트(<http://www.cityofboston.gov/foodtrucks/>)에서 어떤 푸드트럭을 언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각 푸드트럭 웹사이트에서도 영업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스톤 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가(Health, Fire Permit) 및 사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Public, Private, Special)에 대한 라이선스도 따로 승인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한다.

푸드트럭 사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시 홈페이지 (<http://www.cityof-boston.gov/business/foodtruckpermi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코트럭(The Taco Truck)

건강하면서도 매콤하고 담백한 음식이 생각난다면 멕시코 음식이 적합할 듯하다. 2012년 처음 보스톤에서 사업을 시작한 타코트럭에서는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가 들어간 타코, 케사디아 등의 멕시코 음식을 \$4에서 \$6.50 정도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 손님을 위한 작은 타코나 케사디아도 \$3.50에 판매한다.

<http://www.thetacotruck.com/>



▶룩시스 그릴드치즈 (Roxy's Grilled Cheese)

이 푸드트럭에는 치즈가 듬뿍 담긴 그릴드 치즈가 즉석에서 구워져 나온다. 그릴드 치즈를 주문하면 먼스터, 체다, 폰티나, 피멘토, 스위스, 염소치즈 등 여러 종류의 치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햄버거도 다양한 메뉴가 제공된다. 가격대는 \$4.25부터 \$7.25까지 다양하며 모든 메뉴에 베이컨 추가(\$1)가 가능하다.

<http://www.roxysgrilledcheese.com/>



▶본미 트럭(Bon Me Truck)

본미 트럭은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Banh mi)를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발전시켜 다양한 샌드위치(\$6), 라이스볼(Rice bowl, \$6.50), 누들샐러드(\$7) 등을 판다. 선택할 수 있는 속(filling)은 어느 트럭이나 제공하는 고정메뉴가 있고 주기적으로 바뀌는 스페셜메뉴가 있다. 겨울에는 따뜻한 누들 수프도 출시된다. 사이드나 음료, 디저트도 나름 생소한 태국식 메뉴로 고

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http://www.bonmetruck.com/>



▶치킨앤라이스 가이즈(Chicken and Rice Guys)

뉴욕 길거리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할랄(Halal)과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는 치킨앤라이스 가이즈는 크게 세가지 식사를 제공한다. 그릴드치킨(Grilled chicken)과 램자이로(Lamb gyro), 프라이드토푸(Fried Tofu)로 밥과 야채, 피타(Pita)가 함께 곁들여져 나온다. 화이트소스, 핫소스, 갈릭소스가 뿌려진다. 한 점시에 \$10.50.

<http://www.cnrguys.com/>



▶캡틴 마렌스 시푸드트럭(Captain Marden's Seafood Truck)

캡틴 마렌스 시푸드트럭은 클램차우더와 랍스터, 클램(Clam) 롤로 유명하다. 보스톤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클램차우더도 있고 참치나 연어, 새우 랍스터 샐러드도 일품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617-921-9322)로 주문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다.

<http://cmsfoodtrucks.com/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국의 아름다움 담아낸 한인 예술가 그룹전

신제남, 정균재 등 한국 유명작가도 참가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적인 미(美)를 담아낸 지역 한인 및 한국 예술가들의 그룹전이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뉴햄프셔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아트 갤러리(SooRye Art Gallery)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조각을 찾다(Exploring Pieces of Korea)’ 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의 전업작가이자 서양화가 신제남 화백이 특별작가로 초대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 작가 정균재를 비롯한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0여명의 작품이 40점 가량이 전시될 예정이다.

수레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유수레 화가는 “신제남 화백의 작품은 한국의 순백하고 우아한 여인의 향기가 풍겨, 이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유 화가는 이번 전시작들이 한인 화가들의 정서가 담긴 작품이지만

뉴햄프셔 지역 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덧붙였다.

수레아트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작가와 미국 작가들과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다음 이메일(sooryeart-

gallery@gmail.com)로 하면 된다.

전시회 일정

일시: 2014년 11월 8일~12월 20일, (오프닝 리셉션 8일 오후4시~7시)

장소: 수레아트 갤러리, 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bostonkorean@hotmail.com



수레아트 갤러리 전시회에 참가하는 신제남 화백의 작품

한미예술협회 박물관 일일여행 다녀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에서 지난 11월 클라크 뮤지엄(The Clark Art Institute)과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Massachusetts Museum of Contemporary Art)으로 일일여행을 떠났다.

렉싱턴에서 단체 버스로 출발한 이번 여행에는 23명이 참가하여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미술전시를 즐기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수준 높은 인상파 작품을 대거 소장한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크 박물관은 19세기 미

술사의 흐름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어 미술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지난 7월 확장 공사가 끝난 미술관에 많은 소장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알찬 전시를 즐길 수 있었다.

노스 아담스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에서는 솔리트(Sol LeWitt) 작가의 기하학적 벽화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의 컨셉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현대 미술의 흐름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투영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여행은 돌아오는 길에 버크셔(Berkshire) 계곡에서 한창 무르익은 단풍을 감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다가오는 한미예술협회 행사로는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소프라노 흥혜경 독창회 등을 위한 모금 만찬이 있다. 협회나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미예술협회 웹사이트(www.kcs-boston.org)를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의 2015년 행사를 위한 모금 만찬회가 오는 11월 1일 레지스 칼리지 홀(Regis College Hall)에서 열린다.

이날 만찬에는 최근 파블로 카잘스 콩쿨에서 한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첼리스트 문태국 씨와 작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상영 씨가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이어지는 미술품 옥션에는 한인 중견 작가 및 외국인들의 기증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옥션에는 익명의 독자가 뉴욕의 고급 호텔인 맨하탄 클럽(The Manhattan Club) 7일분의 타임쉐어(TIMESHARE)를 내놓았다. 맨하탄 클럽은 뉴욕 센트럴 파크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타임쉐어는 뉴욕 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교체 가능하다.

한미예술협회에서 기획하는 2015년 행사로는 2월 21일 보스톤박

물관(Museum of Fine Arts)과 함께 하는 제2회 구정행사와 5월 16일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열리는 국악과 한국무용 행사, 5월 28일 소프라노 흥혜경씨의 독창회 등이 있다.

김병국 회장은 만찬회에 앞서 “보스톤 교민들의 뜻에 맞는 행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모금 만찬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 전했다.

만찬회 참가 신청은 한미예술협회 홈페이지(www.kcsboston.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 일부와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일정

일시: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장소: 레지스 칼리지 홀(Regis College Hall), 235 Wellesley St, Weston, MA 02493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11월 레지스 칼리지 홀에서 열린 한미예술협회 모금만찬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로드 아일랜드 '2014 로드 풍류'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에서 주최하는 가을맞이 음악회 '2014 로드 풍류'가 오는 26일 일요일 브라운 대학교에서 열린다.

한인회 발전 기금 마련을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국악과 서양의 클래식 재즈가 어우러지는 음악회로 뉴욕 취타대와 아우름(AUREUM)이 무대를 장식한다. 공연 외에도 전통 한과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동문 회장은 음악회에 앞서 "세계 속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한인들의 정성을 주변 이웃에게 자랑스럽게 알

릴 수 있는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켓은 어른 \$30이며 학생 \$15이다. 티켓 예매는 이메일 (info@rikorean.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401-451-8518)로도 문의할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브라운 대학교 살로몬 센터 (Salomon Center DeCiccio Family Auditorium), 79 Waterman Street, Providence, RI 02912
bostonkorean@hotmail.com



오는 26일 열리는 로드아일랜드 가을 음악회

서울대 동창회 가을비 속 뜻 깊은 가을소풍 다녀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회장 장수인)는 지난 11일 콩코드 소재 노스브리지(North Bridge)에서 가을소풍 행사를 가졌다.

총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가을비가 내려 더욱 운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소 동문은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새로운 미국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노스브리지에서 산책을 마친 동문들은 액튼 클럽하우스(Acton Clubhouse)로 장소를 옮겨 도시락을 먹으며 선후배간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께 참석한 55학번 김인수, 이춘순 동문과 7명의 서울대 동문을 자녀로 둔 101세 어머니의 정정하신 모습과 덕담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최고 선배로서 참석한 50학번 모정자 동

문은 은퇴 전 교수로 재직했던 브라운 대학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눴다. 이어 58학번 김경일 동문도 "성공이란 지위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 동문회 모임에 참석한 하버드 케네디스쿨과 MIT의 젊은 동문들은 함께 온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이 되었다며 동문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다음 서울대 동창회 행사는 연말과 티 및 동문 음악회로 12월 13일 토요일 렉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동창회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를 참고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액튼 클럽하우스에서 뒷풀이를 가진 서울대 동창회

단풍 절경 속 가을산행 다녀온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에서 지난 13일 콜럼버스데이를 맞아 워터틱 마운틴(Watatic Mountain)과 캐시더럴 오브더 파인스(Cathedral of the Pines)로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약 40여명의 한인회원들과 초대 회원들이 함께한 이날 산행은 사전 답사로 선정된 쉬운 난이도의 트레일을 따라 진행되었다.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누구나 안전하고 거뜬하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산행이었다. 이동문 회장은 "정상에서 바라본 드넓은 산과 호수, 암석이 어우러진 절경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관이었다"

고 전했다. 한인회는 하산 후 캐시더럴 오브더 파인스로 이동하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했다.

육동석 노인회장은 세 번의 답사를 통해 가을산행을 준비한 한인회 임원과 가족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 그동안 한인회를 이끌어 왔던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로런스(Lawrence) 소재 이가그릴에서 식사하며 이날 전체 일정을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교회협의회 가을부흥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에서 전주버울교회의 원팔연 목사를 초청해 가을부흥회를 연다.

원 목사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을 받고 안정적인 목회지를 떠나 일곱 명의 교인들과 작은 전세방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최초 1만명 교인을 모으며 현재 교단 총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원 목사의 진솔한 목회 이야기를 듣게 된다.

부흥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일요일은 6시 30분에



전주버울교회 원팔연 목사 시작한다.

부흥회 일정
일시: 2014년 10월 24(금)~26(일) (금,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매사추세츠 주, 에볼라 공포 현재는 안심해도 좋다

매사추세츠 에볼라 공포 확산

주지사, 보스턴시장, 관련 공직자 총출동
에볼라 확인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주 에볼라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로 인해 에볼라 공포에 휩싸였던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와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14일 오전 로건 공항에서 최고위급 보건 관계자, 경찰, 소방 그리고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에볼라에 대한) 준비가 됐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2일 일요일 최근 라이베리아에서 돌아온 한 브레인트리 거주자가 에볼라 증상을 보여 검사 중에 있다는 보도가 전달되면서 보스톤의 에볼라 공포지수가 급상승했다. 이 환자는 결국 에볼라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두바이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이 고열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에볼라 확진검사를 했으나 결국 에볼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내에는



에볼라 의심환자가 입원한 브레인트리 소재 하버드 밴가드 병원에 경찰이 진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있다

수십건의 에볼라 유사 케이스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세심한 주의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내에는 아직 확인된 에볼라 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검사한 모든 환자는 에볼라 환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주 보건부 세릴 바틀렛 장관은 모든 병원과 클리닉은 에볼라 검진을 강화하는 질문들을 환자에게 묻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관계자들은 환자들의 여행 여부, 웨스트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경우 아픈 사람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또한 병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분리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보건부 임시 후이 구엔 국장은 에볼라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의 3피트(약 1미터)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에볼라는 공기나 물로 감염되지 않는다. 환자의 땀, 침, 토사물 등 체액이나 혈액을 만지지 않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현재 계속 경찰, 소방관 그리고 주요 보건 근무자들이 에볼라 환자들을 접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에볼라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에볼라의 공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며 긴장하고 있으며 보스톤에서도 유사환자가 발생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에볼라에 대해서 알아본다.

에볼라란?

에볼라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에볼라는 치사율이 50에 달하며 최근 세계 보건기구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치사율이 70에 달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5개 종이 있으며 이중 4개는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5번째는 다른 영장류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이 질병은 1976년 현재는 콩고공화국에 속하는 에볼라 강 인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전염병은 지난 15년간 콩고와 우간다, 남 수단 그리고 필리핀 등에서 간헐적으로 창궐하곤 했었다.

에볼라의 감염경로?

전염은 직접적으로 상처에 감염자의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접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감염된 환자, 사망환자의 체액(혈액, 토사물, 오줌, 배설물, 땀, 정액, 침, 기타 액체)
-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주사바늘, 의료장비)
- 감염된 동물(혈액, 체액 또는 감염된 고기)

에볼라는 공기나 물 음식 또는 일반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이 바이러스 변형되어 공기중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에볼라는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점이다. 즉 에볼라 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에볼라 증상은?

증상은 고열, 두통, 복통, 설사, 구토, 근육통이 수반되며 급작스런 멍이나 출혈이 생긴다. 이 증상은 균에 노출된지 2일에서 21일 정도에 생긴다.

어떤 국가에서 발생했는가?

WHO는 최근 에볼라 창궐이 가장 대규모이며 가장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아프리카 국가들 즉 기니아, 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에서 에볼라 감염이 발생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하부구조와 병원들의 차이로 인해 각각 감염발생양상이 달랐다.

총 에볼라 감염건수는 8,914건

이었으며 이중 4,447명이 사망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는 기니아, 시에라 레온, 라이베리아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최소한 16명의 환자들이 웨스트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명은 스페인이었고 2명은 미국에서였다. 최근 델라스 거주 42세 남성은 라이베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감염되어 사망했으며 그를 치료했던 간호사도 에볼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구글, 보스톤 지역 당일 배달서비스 시작

■서비스 가능지역

보스톤, 브루클라인, 케임브리지, 첼시, 서머빌, 알링턴, 에버렛, 몰든, 메드포드

■구매 가능 소매업체

베이비스어러스, 반즈앤노블, 코스코, 기타센터, 엘 옥시테인, 스테이플스, 스탭앤샵, 월그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글 익스프레스 서비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구글이 그레이터 보스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당일 배달 서비스인 구글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

구글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지역소매업체에서 물건들을 검색해서 주문하는 경우 몇 시간 만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보스톤, 브루클라인, 케임브리지, 첼시, 서머빌, 알링턴, 에버렛, 몰든, 메드포드 등 8개 지역의 거주자들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베이비스어러스, 반즈앤노블, 코스코, 기타센터, 엘 옥시테인, 스테이플스, 스탭앤샵, 월그린 등 업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점차 더 많은 판매업체들이 이 익스프레스 서비스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배달 지역 또한 넓혀갈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당일 배달 서비스에 대해 연당 또는 월 그리고 배달행위당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1년 \$95, 월별 \$10을 내는 경우 \$15이상의 주문은 무료다. 또한 배달 행위당으로는 한 번 \$4.99에 주문할 수 있다.

구글 익스프레스는 현재 아마존의 당일 배달 서비스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2009년부터 보스톤 지역의 당일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주문당 \$5.99이며, 가입자가 아닌 경우 주문당 \$8.99에 아이템당 99센트를 더 부과한다.

그러나 당일 배달 서비스의 운영은

좀 다르다. 아마존은 해당 네트워크의 창고를 이용하지만 구글은 파트너 소매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자가 구글 익스프레스를 통해 주문하면 지역 소매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를 받는다. 주문한 물품을 구글 브랜드의 백에 넣으면 제 3의 배달회사가 이를 전달한다. 배달원들은 구글 유니폼을 착용한다.

구글의 당일 배달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에서 서비스를 시작 올해 5월에는 LA, 뉴욕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주 구글은 시카고와 워싱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은 800명 이상의 택시 기사가 등록된 헤일로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다

택시 연결 헤일로, 서비스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손님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헤일로(Hailo)가 보스톤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헤일로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사 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800명 이상의 택시 기사가 헤일로에 등록된 보스톤은 헤일로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다. 보스톤 지역에서 서비스를 그만두면서도 체스터에 위치한 헤일로의 보스톤 사무실도 문을 닫을 예정이고, 40여 명의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헤일로의 최고 경영자 탐 바르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버, 리프트 같은 동종 업체와

의 가격 전쟁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우버와 리프트는 택시 기사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 비해 정부의 규제를 덜 받고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바르는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면서 다른 회사와 경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고 말했다.

헤일로는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대신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대도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택시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규제가 더 엄격해 우버와 리프트가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에 우버는 독일에서 소송에 패해 서비스가 금지되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미주 한인들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2명의 보스턴 공원경찰 노숙자의 칼에 찔려 한 명 중태

편집광적 정신착란자
보스턴 커먼 활보
보스턴 커먼 노숙자
위험성 재고 필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세벽 기자 = 보스턴의 한복판 보스턴의 커먼에서 14일 한 노숙자가 그에게 다가선 공원 경찰(park ranger)을 칼로 찔러 한 명은 팔에 상처를 입혔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트렸다. 이로 인해 보스턴 커먼의 안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스턴 경찰 대변인 마이클 맥카시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후 공원 경찰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 경찰의 주된 임무는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공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맥카시 대변인은 지난 2월이래 보스턴 커먼에서 마약 및 범죄자 체포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 공간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노숙자 보디오 허친슨(34)은 보스턴 커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솔저스앤세일러스 동상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원 경찰들은 그에게 고추가루 스프레이를 뿌려 제압하려 했으나 그는 돌진해 경찰들을 각 다섯 차례씩 칼로 찌른 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본 목격자들은 즉시 달려가서 피를 흘리는 경찰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출동한 보스턴

경찰은 그를 보스턴 가든으로 추적해 체포했다. 그는 추적하는 경찰에게 여러 차례 돌아서며 자신을 쏘라며 저항했고 경찰은 그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법원은 그에게 100만불 보석금을 책정하고 5천불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반론을 기각했다. 또한 이미 수건

의 집행유예 위반으로 보석이 기각됐다. 변호사는 그가 19세 이후로 편집광적인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는 상태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허친슨은 무수한 폭력전과가 있었다. 2013년 2월 맥도날드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얼

굴에 이유없이 편지를 날렸으며 이를 구하려 뛰어든 남성의 이마와 팔을 물어 뜯었다. 법원은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형기를 마쳐 방면됐다.

2010년 1월에는 싸움중 상대방 귀를 물어뜯어 체포됐다. 그는 감옥에서 옷벗기를 거부하다 무려 6명의 간

수들을 물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는 난동을 부렸다. 이 와중에 한 간수는 손가락이 부러졌고 다른 2명은 갈비뼈가 부러졌다. 또 한 간수의 팔을 물고 놓치지 않아 여러 차례 편지를 가한 후에야 비로서 놓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찾아가는 네일 서비스 MA에서는 불법 논란

신생기업 매니큐브 직장에서
네일 서비스 제공
기존 네일 업체들 반발, MA정부 불법이라고 통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큐브(Manicube)가 매사추세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매니큐브에서 제공하는 네일 서비스가 기존의 매사추세츠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허가를 받은 네일 살롱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네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문제, 위생 등의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니큐브는 네일 살롱이 아닌 곳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네일 살롱 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네일 서비스를 규제하는 매사추세츠 미용 등록 위원회(Massachusetts Board of Registration of Cosmetology)가 매니큐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 2명이 창업한 매니큐브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생 기업으로 올해 가을부터 보스턴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니큐브는 일하는 여성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일 살롱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매니큐브는 네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회사에 직접 찾아가 빈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니큐브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매니큐브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법이나 산업 체



매니큐브는 직장 여성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우버(Uber)나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Airbnb)가 비슷한 사례다.

매사추세츠 미용 등록 위원회가 매니큐브에 보낸 서한에는 “매니큐브가 매사추세츠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과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조만간 감사를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적혀 있다.

매니큐브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휘트먼은 매사추세츠 법

이 너무 오래 되었고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휘트먼은 기존 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결혼식을 위해 신부가 머리 손질, 화장, 네일 등을 집이나 호텔에서 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휘트먼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전형적인 네일 살롱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가 법 조항을 현대화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BEDFORD 지역 단독주택

(3 CEDAR LANE, BEDFORD, MA 01730)
For sale: \$ 599,000, For rent: \$ 2,35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학군 좋은 Bedford지역 Single House, CUL-DU-SAC,
Private한 곳에 위치, 넓은 정원

'유로존 진앙' 그리스 위기 재현

그리스 국채 7개월만에 7% 웃돌아 유로존 재정위기 2탄 가능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정성)를 앞두고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의 경기 부진 시장에 영향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스테그네이션(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종합지수는 전일대비 6.25% 폭락했다. 장중에는 9%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0.85% 포인트 오른 7.85%로 거래를 마쳤다. 금리가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7%를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포렉스 닷컴의 리서치 팀장 캐슬린 브룩스는 재정위기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유로존 재정위기 2.0"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그는 "그리스에서 중대한 변화가 지난 며칠 동안 나타났다. 다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중요한 지점을 넘어서었다"며 "(재정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3년 전을 떠올려보면 유럽 변방국의 국채 금리는 7%를 웃돌았고, 이 수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국채 금리 급등과 주가 폭락은 그리스 정부가 예정보다 앞서 구제금융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의회에서 신임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의회로 하여금 구제금융 조기 탈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트 파트너스의 고정금리 담당 전략가 빌 블레인인은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에 따라 부여된 이행의무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우려하고 있다"며 "그리스에 대한 시각은 회의론과 우려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조기에 끝내고, 유럽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스는 2016년 말로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프로그램을 끝내길 원하지만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사라 펄버튼은 투자자노트에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그리스가 조기 탈출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7%는 그리스가 IMF에 납부하고 있는 이자보다 높으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연장할 때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유로존의 스트레스테스트(건정성)를 앞두고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과 최근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의 경기 부진으로 유로존 스테그네이션 우려가 증폭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그리스 은행권은 자기자본을 늘리고 통합과 재구조화 개혁에서 진전을 보고 있지만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이는 스트레스테스트로 부족한 자본 문제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수요둔화에 OPEC내분까지 2년 4개월래 최저 '추락'

향후 가격 결정력은
세일가스 생산하는
미국에게 갈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약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저앉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글로벌 경제 성장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의 세일가스 붐 등 다양한 약재가 중첩됐지만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내홍이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90달러(4.6%) 내린 배럴당 81.84달러에 체결됐다. 이는 2012년 6월 28일 이후 최저다.

직접적으로는 IEA가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22% 낮춰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최근에 OPEC국가들이 가격보다는 시장 점유에 힘쓰겠다고 말하는 등 회원국들간의 불협화음이 커진 것이 유가에 더욱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세계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방적인 생산량 감축으로 가격을 지지하기 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에는 80달러 이하로 유가가 내려가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쿠웨이트까지 원유생산량 감축에 반대하면서 사우디를 돕고 나서 역학관계가 한층 복잡해졌다. 12일 쿠웨이트 석유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76~77달러에서 하락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80달러 이하의 가격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외무장관이 나서서 유가 하락 문제에 대처하자고 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는 국가들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간 미국 등 북미 지역의 세일가스 생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줄지 않으면서 국제유가 시장 상황은 점점 악화돼 왔다.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를 끌어올렸던 리스크들, 즉 리비아 내전 등도 상대적으로 유전지역은 안전했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밖으로는 미국산 세일가스의 도전에, 안에서는 회원국간의 '살아남기' 전략때문에 국제유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던 OPEC의 위상까지 흔들릴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엔 일사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OPEC가 아닌 미국측이 세일가스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글로벌 석유생산량 및 가격이 조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급격한 가격 하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래야만 세일가스 등의 비전통적 자원이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ungaungae@news1.kr

안티비(안티비)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에볼라 환자, 통제 능력 '구멍'

2번째 전염자 격리 치료 받기 전에 클리블랜드 행 항공기에 탑승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내 첫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를 돌보던 의료진 중 2번째 전염자가 격리 치료를 받기 전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보건 당국의 질병 통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날 에볼라 양성반응을 나타낸 텍사스 건강장르병원 간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로 오는 프론티어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텍사스 건강장르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던 지난 8일 사망한 에릭 던컨의 의료진 중 한명인 엠버 빈슨(29)은 지난 10일 댈러스에서 클리블랜드로 갈 때에도 비행기를 이용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빈슨이 댈러스로 올 때 이용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132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기 승무원인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간호사(빈슨)는 항공기 내에서 어떠한 증상 및 이상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DC 측이 전했다.

CDC는 "13일 저녁 항공기에서 내린 그가 다음날 오전 출근 후 고열 증세를 호소한 만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을 추적할 것"이라면서도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CDC 측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그가 항공기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승객에 전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일정을 취소하고 에볼라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간호사는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됐다"며 "그가 양성 반응을 보이기 전 직접 3명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든 소장은 빈슨을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으로 옮겨 치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연기하고 에볼라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정부 관계자는 "빈슨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치료에 성공한 애틀랜타 내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보건당국의 에볼라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으며 격리되기 전 비행기로 여행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확산 공포가 커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에볼라 격리 치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미국 내 4대 의료 기관 중 하나인 에모리대학 병원은 서아프리카에서의료 봉사 중 에볼라에 감염된 켈트 브랜틀리 박사, 간호사인 낸시 라이트볼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곳이다.

이와 관련 간호사 협회 측은 병원 내 전염병 담당자와 CDC 측이 유해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천장에 쌓아논 점을 들어 책임을 묻고 있다.

간호사 측은 성명을 통해 "간호사들은 (보건당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비아 버웰 미국 보건장관은 미국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간호사 측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jjung@news1.kr

애플, '세계에서 가장 얇은' 아이패드 에어2 공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애플이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진 새 아이패드 에어와 7.9인치 아이패드 미니3를 공개했다. 5K 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맥도 선보였으며 지난달 공개됐던 모바일 결제시스템 '애플페이'는 다음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의 타운홀 강당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행사에서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2'를 공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작부터 추가된 골드 색상 모델을 직접 들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필 실러 부사장은 "아이패드 에어2는 전작인 아이패드 에어보다 18% 얇아진 6.1mm 두께"라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PC"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2가 전작보다 얇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패드 에어2를 가리고 있던 연필을 깎아내는 영상도 공개했다.

무게는 무선인터넷(Wi-Fi) 전용 모델이 437g, 셀룰러 모델이 444g으로 전작보다 각각 32g, 34g 가벼워졌다. 9.7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2는 전날 애플이 실수로 공개한 사진대로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ID가 추가됐다. 터치ID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잠금 해제나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인앱 결제, 애플페이 등에서 이용자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아이패드 에어2에는 아이폰6에 탑재된 A8보다 향상된 A8X 프로세



서가 탑재됐다. 2세대 64비트 아키텍처 기반에 30억개 트랜지스터로 전작보다 40% 빨라진 CPU 성능과 2.5배 이상의 GPU 성능이 담겼다. 필 실러 부사장은 "최초의 아이패드보다 12배 이상 CPU 속도가 빨라졌으며 그래픽 처리 속도는 180배 향상됐다"고 말했다. 배터리는 무선인터넷 기준으로 웹서핑시 최대 10시간, LTE 데이터 웹서핑 최대 9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800만화소 아이사이트(iSight) 카메라와 120만화소 페이스타임 카메라는 1080p HD 동영상 촬영과 720p HD 화상통화를 지원한다. 또 향상된 얼굴 인식 기능, 고속사진연사 촬영을 도와주는 '버스트모드'와 타임랩스, 슬로모션 비디오 촬영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무선인터넷(Wi-Fi) 모델은 내장 저장공간 16기가(GB) 모델이 미국 기준으로 499달러부터 시작하며 64기가는 599달러, 128기가는 699달러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셀룰러 모델 가격은 629달러부터 829달러까지로 책정됐다.

셀룰러 모델의 경우 20개의 롱텀에볼루션 밴드에서 최대 15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까지 지원한다.

Call for a Free Trial Class Now!

the critical reading & writing experts

WEEKLY CLASSES

Year Round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청담 ReadWrite의 수업으로 학년별, 수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
Literary Analysis

3학년과 4학년 :
Reading and Writing Workshop

5학년부터 8학년 :
Expository Analysis, Literary Analysis, Introduction to Creative Writing

9학년부터 12학년 :
Expository Analysis, Intensive Essay Writing, SAT Practice & Review

Special Programs Fall 2014

Vacation Days (9:00am - 3:00pm)
학교에 가지않는 공휴일에 숙제와 독서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스킬을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2014년 11월 11일(화요일)
- 2015년 1월 19일(월요일)
- 2015년 2월 16일~20일(월요일-금요일)
- 2015년 4월 3일(금요일)
- 2015년 4월 20일~24일(월요일-금요일)

Pizza Nights
책을 읽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발표하는 재미있는 북클럽 시간입니다. 이번달 선정된 책은 The Giver 입니다.

- 2014년 10월 17일 5:00-8:00pm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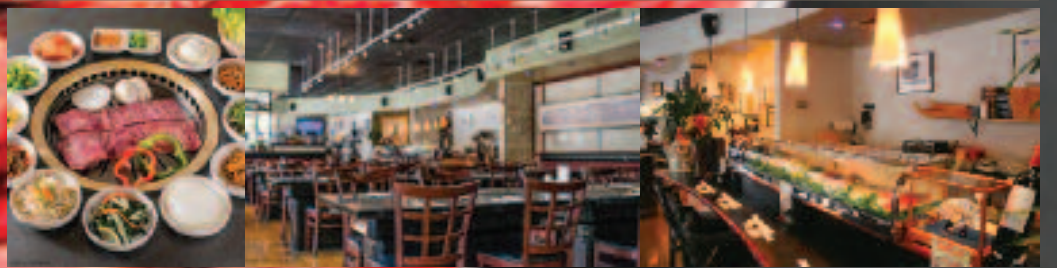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텔레그램 망명 열풍, 여야 정치인들도 속속 가입

(서울=뉴스1) 김영신 =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열풍인 가운데, 텔레그램을 설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일 증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여야 의원들의 텔레그램 사용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권은희·신의진·이인제·이재오·이철우·이자스민·진영 의원(가나다순) 등이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다.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IT기업 출신인 권 의원은 "카톡 논란이 불거지며 텔레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해 텔레그램에 가입해봤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 가입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망명이 아니다. 카톡을 비롯해 여러 개의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텔레그램을 쓰는 새누리당 한 의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보좌진들까지 모두 텔레그램 사용자다.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여당 의원들은 "망명은 아니다"고 일축하지만 혹여라도 비밀과 정보가 새나가는 데 대한 위기감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출신 인사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해규 전 의원(현 경기개발연구원장),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텔레그램을 사용 중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 일부와 의원 보좌진들 수십명도 텔레그램에 가입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도 눈에 띄었다.

야당의 경우 텔레그램 사용도가 훨씬 높다. 김현미·배재정·변재일·윤호중·이춘석·임수경·진선미·정호준·한정애 의원 등이 텔레그램에 등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중 33명 가량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최근까지 '사이버 의원총회'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한 데 대해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된 뒤 카톡 단체방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카톡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며 야당 의원들은 앞서 텔레그램에 가입한 의원들이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사용을 권유하며 망명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의원들 상단 좌측부터 여당의 이재오, 강석훈, 신의진 의원 하단 좌측부터 야당의 김현미, 이춘석, 임수경 의원

길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텔레그램 열풍에 대해 "정부 사찰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카카오톡으로 반(反)정부성 정보를 주고받거

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헐담을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현재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미래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법적으로 율야될 수 있다는 점을 최근의 논란에서 보고 있다"

면서 "어떤 중요한 대화를 나눠서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Quinc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 17, 2014 - OCT. 23,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The Freshest

NEWLY ARRIVED SEAFOOD SPECTACULAR

Experience the freshest selection of quality seafood.

새마르만의 싱싱 수산물

아침마다 도착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새마르에서 만나세요

TONGTONGBAY DRIED SLICED POLLACK 통통배 부어채
 8oz./pkg. **\$9.99**

HAIOREUM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pkg. **\$3.49**

UNAGI KABAYAKI 우나기
 7oz./pkg. **\$6.99**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lb. **\$5.99**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up/lb. **\$7.99**

5TH ANNIVERSARY SWEEPSTAKES

LUCKY WINNERS! CONGRATULATIONS!

H마트 MA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축제 행운의 당첨자

1ST PRIZE: \$1,000 HMART GIFT CERTIFICATE (1 WINNER)
 4030XX8539 Youpoon Eugenia

2ND PRIZE: \$300 HMART GIFT CERTIFICATE (5 WINNERS)
 4030XX3964 Hee Kyug Park
 4030XX9044 Cheng-Chi Chuang
 4030XX3515 Meishien Lien
 4030XX6717 Sunyong Park
 4030XX9440 Juhan Yoon

* FIND OUT OUR LUCKY WINNERS AT HMART.COM

Chongga Jip

사은품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OCT. 18 - OCT. 19, 2014

Chongga Jip Pokkimgchi 5.5 LBS. 구매시, Chongga Jip Kakdugi 1.1 LBS. 무료 증정!
 PURCHASE CHONGGA'S 2.2 LBS. POKKI KIMCHI & TAKE HOME A FREE CHONGGA'S 11 LBS. CUBED RADISH KIMCHI.

Chongga Jip Matgimchi 5.5 LBS. 구매시, Chongga Jip Kakdugi 1.1 LBS. 무료 증정!
 PURCHASE CHONGGA'S 2.2 LBS. MAT KIMCHI & TAKE HOME A FREE CHONGGA'S 11 LBS. CUBED RADISH KIMCHI.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8</p>	<p>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 \$1.99</p>	<p>Fuyu 단감 box \$14.99</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68</p>	<p>Napa Cabbage 배추 box \$9.99</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p>	<p>Beef Flank Steak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p>	<p>Beef Patella Bone 도가니 lb. \$1.49</p>	<p>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s. \$12.99</p>	<p>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0.99</p>	<p>NONGSHIM Shin Ramyun 동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pkg. \$10.99</p>	<p>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우리쌀 찰고추장 6.6 lbs. \$12.99</p>	<p>CHUNGJUNGONE Persimmon Vinegar 청정원 감식초 16.9fl.oz. \$7.99</p>
<p>Korean Rice Cake w/ Sauce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Original/Mild Curry/Spicy/17.1 - 21.2oz. \$4.99</p>	<p>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 바다너머 부산어묵 1.76 lbs. \$3.99</p>	<p>PENGUIN Canned Mackerel/Mackerel Pike 펙귄 고등어/꽂치 통조림 14.1oz. \$1.99</p>	<p>CROWN Corn Chips 크라운 콘칩 5.85oz. \$1.99</p>	<p>HAIOREUM Soy Soy Delicious Soy Milk 해오름 쏘이쏘이 달리셔스 두유 All Flavors 6.76fl.oz. x 24ea./pkg. \$9.99</p>
<p>Back Supporting Mesh Cushion 방사 등받이 쿠션 ea. \$2.99</p>	<p>Ceramic Tea Cup Set 세라믹 5인 다기 세트 312 Rabbit/set \$10.99</p>	<p>Premium Golf Umbrella 최고급 골프 우산 ea. \$6.99</p>	<p>Pumpkin Shaped Ceramic Pot with Lid 호박 내열 냄비 Small/ea. \$12.99</p>	<p>QUEENSENSE C.D Double Sided Pan 퀸센스 C.D 양면팬 HRF-03/ea. \$24.99</p>

New HAIOREUM Product Launch!

Berry Berry Fresh!

Minty Minty Refresh!

NEW

꼬여만 가는 '사이버 검열' 사태... 궁지에 몰린 검찰

"논란 원인 제공하고 사태는 악화"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 화 불렀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업계 1위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이 같은 논란의 원인제공자인 검찰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 '사이버 검열' 논란 왜 촉발됐?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자마자 대검찰청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모바일 관련 IT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포털사에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글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검찰과 포털사 간 '핫라인' 구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까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지인 3000명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가뜩이나 성난 '넷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여기에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를 수사하면서 네이버 '밴드'에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까지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들은 "검찰과 경찰이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0만명 이상이 독일의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 길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13일 열린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급기야 황 장관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사실과 다르고 표현 때문에 빚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어진 오해"라며 "나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기관을 향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압박했다.

◇ '자충수'로 궁지에 몰린 검찰...디

지털 증거확보 비상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자 검찰은 "실시간 감청을 비롯한 사이버 검열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검찰이 분명한 책임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권한마저 무시하고 인터넷 글 삭제를 직접 포털에 요청하겠다고 나선 것도 관행적인 수사편의주의로 권력 남용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사고의 일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동안 통신감청 영장 기각률이 4%대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미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피의자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들춰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측은 이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기존 7일에서 2~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이 이번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선부르게 움직이며 논란을 촉발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검찰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증거다.

lennon@news1.kr

김진태 검찰총장 '카톡 검열' 논란해소 지시

대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회의 개최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검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이탈 속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진 않았다.

김 총장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15일 검찰의 유관부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법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



김진태 검찰총장

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 2600만명 사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범인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의거해 통신제한조치인 감청영장 집행의 경우 카카오톡 이용자가 유괴·인신매매·마약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

인하지 않고서는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처럼 '사이버 검열'이 사실과 다른데도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indy@news1.kr

'사이버 검열' 검찰 해명, 여론 진화 위한 눈가림

민변 등 "사이버사찰 금지 위한 근본 대책 내놔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등은 "15일 검찰이 밝힌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은 여론 진화를 위한 눈가림"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5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나온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대응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민변 등은 "공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메신저 압수수색 때 불건다 들여다 보고 나서 알아서 폐기

하겠다는 검찰의 선언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메신저에 대한 감청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지는 연행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패킷 감청을 강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보호받는 사이버 공간이 민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사이버 사찰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 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압수수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rin@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러버덕' 인기로 한정판 인형도 '불티'

**5천개 한정판 중 1차 물량
3천개 2일만에 '완판'
1인 1개로 구매 숫자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석촌호수에 띄워져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1t짜리 거대 고무 오리 '러버덕'의 축소판 인형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러버덕 공식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5천개 한정판 러버덕 인형인 '러버덕 프로젝트 아티스트 에디션'(2만 4천원) 가운데 1차분인 3천개 물량이 이를 만에 거의 팔렸다.

롯데 측은 이르면 이날 중 3천개가 '완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치를 웃도는 빠른 속도로 한정판 물량이 동나자 1인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한정판 인형에는 러버덕을 만든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사인과 5천개 중 몇 번째 인형인지 나타내는 고유 일련번호가 새겨졌다.

일반판 러버덕 인형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에디션'(1만 6천원)도 러버덕 인기로 힘입어 덩달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러버덕 캐릭터 상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는 석촌호수,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1층과 잠실점 지하 1층에,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인형을 비롯해 액자(1만 2천원), 엽서(1천 500원), 자석(1천 500원), 배지(1천 500원) 등 간단한 러버덕 캐릭터 상품을 판다.

팝업스토어 수익은 전액 문화예술 후원 사업에 쓰인다. 러버덕 프로젝트 자체가 영리 목적 전시가 아닌 만큼 애초에 상품 종류와 수량이 많지는 않다.

러버덕이 화제를 모으면서 팝업스토어에도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지만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Rubber Duck)'이 떠 있다

대부분 상품이 수요와 비교하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러버덕은 2007년부터 '러버덕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를 돌며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송파구청과 롯데월드몰

공동 주최로 다음 달 14일까지 석촌호수에서 러버덕을 전시한다.

rice@yna.co.kr

석촌호수에 러버덕이 떴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잠실 석촌호수에 1톤짜리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이 등장했다.

송파구청과 롯데월드몰이 공동 주최하고 엠허스트가 주관하는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 전시 프로젝트가 오늘(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서울 석촌호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만든 노란색 고무 오리 인형으로 2007년부터 전세계 16개국을 돌며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러버덕의 크기는 가로 16.5m, 세로 19.2m, 높이 16.5m이며 최대 무게만 1톤에 달한다. 그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사카, 시드니, 상파울로, 홍콩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전시됐으며 마지막 우리나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러버덕 프로젝트는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된다.

newjd@news1.kr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어린이들이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Rubber Duck)'을 배경을 사진을 찍고 있다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Rubber Duck)'은 다음 달 14일까지 석촌호수에 전시된다

동서식품, 대장균균 검출제품 시리얼에 재사용

**진천공장서 만든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서울=뉴스1) 임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대장균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재사용해 시리얼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출고 전 자기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균이 나온 제품을 조금씩 섞어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했다. 완제품인 시리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도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시중에 유통된 해당 제품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대장균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장균균은 식품 위생 지표로 활용된다.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세균들 집

합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거·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news1.kr

동서식품, 3개 제품 추가 유통·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레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조치...
조사 결과 따라 품목 확대**

(서울=뉴스1) 임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재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인 동서식품의 3개 제품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 중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전날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한데 이어 이날 '그레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레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부적합 제품이 다른 제품에도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동서식품 진천공장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다"며 "대장균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장균균은 식품 위생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세균들 집합을 의미한다. sj@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일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남북, 또 다시 '진실게임'... 고위급 접촉 성사 불투명

'긴급 단독 접촉' 대표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북 주장 사실일 경우 대북정책 자체에 신뢰
도 의문 제기될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16일 전날 진행된 군사 당국간 접촉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이날 오후 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북 군사 당국간 접촉 관련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측이 밝힌 회담 관련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박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에서의 남북 함정간 상호 포격을 계기로 우리 측에 보낸 전통신문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통신은 지난 7일 상호 포격 이후 우리 측 국가안보실 실장에게 보낸 '각서'(전통신문)에서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은 접촉의 북측 대표로 누구를 상정했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를 통해 "지난 7일의 전통신문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우리 측 김관진 실장 앞으로 왔다"면서도 "북측

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내보내겠다고 밝혔다"고 말해 북측이 '김관진-황병서' 단독 접촉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신의 보도만 놓고 보면 북측은 적어도 우리 측 대표로는 김관진 실장을 상정한 것으로 보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북한은 또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긴급 접촉을 제의했으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북측은 '김-황' 단독 접촉을 염두하고 이번 제의를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다는 주장이어서 우리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은 또 자신들은 군사 당국간 접촉을 애초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우리 측이 끝내 비공개를 요구하다가 나중에야 태도를 바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통일부는 "접촉의 비공개는 양측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비공개가 남북간 합의였음을 시사했다.

양측이 중요한 대화 혹은 협의를 두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측 김영철(오른쪽 가운데)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왼쪽 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은 처음 아닙니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시 양측 수석대표의 급과 격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벌이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다 회담을 무산시킨 바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25일에도 북측 수석대표 이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당시 별도의 방에 머물던 우리 측 취재진 앞에서 회담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1년엔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 비밀접촉에서 우리 측이 '돈봉투'를 건네며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북측의 주장이 제기되

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도 북한은 아직까지 '진상공개장' 등을 수시로 발표하며 우리 측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 카드는 북측의 일종의 대남 압박 전술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장문의 보도를 통해 이번 군사접촉의 전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주장을 펼치고 나옴에 따라 북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투명한 대북정책'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비공개 접촉을 추진한 정부도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이 사실상 7일 보낸 첫 전통신문에서 '김관진-황병서'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따라 우리 측이 앞서 밝힌 "북한이 김관진 실장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내보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오는 30일 갖자고 우리 측이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같은 진실공방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통신은 이날 "일정에 오른 북남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언급해 또 다시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seojiba@news1.kr

북 김정은, 지팡이 짚고 40여일만에 재등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지도
여러 관측 난무에 건재 과시 용인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약 40여 일만에 지팡이를 짚은 채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재등장은 그를 둘러싼 안팎의 여러 관측이 난무한 것을 의식,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개활동에는 실세 측근들이 수행해 그의 권력이 공고함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제1비서가 새로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비취 전날인 13일 현지지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 속 김 제1비서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

고 서있어 그간 알려진 김 제1비서의 부상은 발목 부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제1비서는 다만 밝은 얼굴로 현지지도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문 역시 김 제1비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1면에 크게 게재해 건재를 과시했다.

김 제1비서는 이날 주택지구 곳곳을 돌아보며 "희한한 풍경이다, 건축 미학적으로 잘 건설됐다" 등의 큰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주택지구 내 탁아소, 유치원, 학교 및 텃밭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체육공원 역시 돌아봤다고 전했다.

김 제1비서는 또 건설을 진행한 인민군 군인과 건설자들에게 "약속한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주택지구를 완공했다"며 당 중앙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이름으로 '감사'를 주기도 했다.

김 제1비서는 아울러 주택지구에 입사할 과학자들과도 세차례에 나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최룡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실세 측근 인사들이 김 제1비서의 이번 현지지도를 수행했다.

앞서 김 제1비서는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보도일 기준) 이후 40여일간 공개활동 및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5일 김 제1비서의 기록영화에서 김 제1비서에 대해 '불편하진 몸'이라고 언급해 그의 건강 이상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seojiba@news1.kr

10月

AMORE FALL EVENT



WORLD'S FIRST AIR CUSHION® XP
BROAD SPECTRUM SPF 50+ NATURAL COVER

**에어쿠션® 구매고객님께
스템셀 3종 트라이얼 키트를 증정합니다**

\$90 이상 구매시
가늘고 손상된 모발을 탄탄하고
찰랑이게 가꾸어 주는 **려 함빛 집중 영양
트리트먼트(180ml)**를 증정합니다

바이오 에센스(\$60) 구매시에도 증정



당신도, 경험하세요!
피부 탄력의 끝

슈퍼바이탈 크림 구매시 슈퍼바이탈 5종 샘플 키트를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10/1 ~ 10/31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려, 미장센

Beef Soup at S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10주년 감사 부흥성회 10월17일(금)-19일(주일)

“삶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김한덕 목사 (강경제일교회)
정영현 목사 (로렐교회)
김용원 목사 (동산교회)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101 LADY SARAH'S CANYON
세빛교회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30 Avonlea Drive, Boston, MA 02116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함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함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함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에리끄 에스텍 특별할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검진 150 신체검진 120 신체검진 80 신체검진 60 신체검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킨케어 15만 스킨케어 16만 스킨케어 20만 스킨케어 26만 스킨케어 3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비뇨기 95만 남성비뇨기 700만 남성비뇨기 400만 남성비뇨기 450만 남성비뇨기 350만


이윤수 & 조성원 비뇨기과

11월 11일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2014년 8월 ~ 11월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근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제라드 메이요 시즌 아웃, 패츠 수비에 빨간 불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주 경기에서 같은 지구의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37 대 22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빌스전에서 주전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앞으로의 경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패트리어츠는 빌스와의 경기에서 주전 라인배커 제라드 메이요와 러닝백 시티븐 리들리가 부상을 당했다. 경기 후 정밀 진단 결과 메이요는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을, 리들리는 무릎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두 선수 모두 올해 잔여 경기 출장이 불가능해졌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해에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야 했다.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배하며 수퍼볼 진출이 좌절됐다. 올해도 리들리와 메이요가 시즌을 마감하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리들리의 부상은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뼈아프지만 메이요의 부상만큼은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러닝과 패싱 공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러닝백 포지션은 리들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백업 선수들이 충분히 있다.

반면에 패트리어츠에는 당장 메이

요의 부상을 메울 선수가 없다. 메이요는 베테랑 선수로 팀의 리더이자 패트리어츠 수비에서 쿼터백 같은 존재다. 누군가 메이요를 대신해 라인배커 포지션에서 경기에는 나설 수 있지만 메이요를 대신할 수는 없다.

패트리어츠의 세이프티 데빈 맥커티는 “우리 팀의 모든 선수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메이요가 7년 동안 해 온 것을 다른 한 선수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패트리어츠가 보유한 라인배커의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브랜드 스파이크스와 데인 플래처를 내보냈고, 베테랑 선수인 제임스 앤더슨과 계약을 했지만 앤더슨은 시즌 시작 전에 주전 로스터에서 제외됐다.

2년차 라인배커인 제이미 콜린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언드래프트로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디온테 스키너 역시 더 많은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빌 벨리치 감독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 선수가 아닌 여러 선수들이 메이요가 했던 일을 나누어서 맡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팀에 누구도 메이요가 했던 일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여러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캡틴 제라드 메이요가 빌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카트를 타고 경기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했다.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릎 부상으로 최근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단테 하이라워가 하루 빨리 복귀해야 한다. 하이라워가 복귀하면 콜린스나 스키너와 함께 인사이드 라인배커 포지션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전술적인 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대 팀의 공격에 따라 4-3 포메이션이나 3-4 포메이션을 번갈아 사용하며 수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다.

메이요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팀 내 태클이 압도적인 1위였다. 또한 메이요는 쿼터백처럼 헬멧에 장착된 이

어폰을 통해 감독의 지시를 받아 수비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올해는 더 이상 메이요를 경기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 수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4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만남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기운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 기운이 아름다운 향기로 발산 될 수도 있고 향기롭지 못한 악취로 뿜어져 나갈 수도 있다. 조금 더 나가서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축복이자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필자는 대부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온 편이다.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살아왔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곳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도 줄곧 학교에서 일하다 학교를 벗어나서는 프로 골퍼라는 특수한 일에 종사했기에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내 나름대로 선별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골프는 파트타임이 되고, 풀타임으로 하는 다른 일이 생겼는데 그러다보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27년만에 처음으로

사회에 나오게 된 기분이다. 학교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서 혹은 프로 골퍼라는 커다란 온실 안에서 처음으로 거친 자연의 환경 속으로 나온 기분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혹독한 비바람과 추위 혹은 무더위 같은 무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요즘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이 또한 자연의 놀라움이 아닌가 한다. 비단 놀라운 빛

갈로 물들어 있는 나뭇잎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가능성을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진다. 내가 품어주고 또한 내가 품임을 받으면서 만들어져가는 관계가 참 좋다. 세월이 지나 뒤돌아 보았을 때 참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들의 만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사람들이 참 좋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이리 엮히고 저리 엮혀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다. 그렇게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쁜 기운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혹은 자기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있을 수도 있고 전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포스트 시즌 8연승 캔자스시티,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

기적의 시즌 만드나?
자이언츠와 세인트 루이스
승자와 월드시리즈 대결
85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첫 우승 노려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고동욱 기자 = 만년 최하위에서 '기적의 팀'으로 탈바꿈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포스트 시즌 8연승을 내달리며 29년 만에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캔자스시티는 15일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컵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에서 2-1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4승으로 월드시리즈에 선착했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내주고 와일드카드로 가을무대에 나선 캔자스시티는 단판제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를 연장전 끝에 9-8로 눌렀고, 디비전시리즈에서는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최다 승률(0.605)을 올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시리즈 전적 3승으로 제압했다.

28년 만에 가을무대를 밟은 캔자스시티는 1985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기적의 시즌'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캔자스시티는 7전 4선승제의 ALCS에서 볼티모어에게 단 한 경기도 내주

지 않고 4승을 거뒀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베이스볼레퍼런스닷컴에 따르면 포스트시즌 개막 후 8연승은 2007년 콜로라도 로키스의 기록(7연승)을 넘어서 역대 메이저리그 단일 포스트시즌 개막 후 최다 연승 기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6회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6-4로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인트루이스의 홈에서 1승 1패를 거둔 뒤 홈으로 돌아와 2연승, 먼저 3승을 쌓아 2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 ALCS(캔자스시티 로열스 2-1 볼티모어 오리올스) =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디비전시리즈 3차전(8-3 승리)을 제외하고 모두 3점차 이내 박빙의 승부를 펼친 캔자스시티는 이날 4차전에서도 한점 차 승부를 견뎌내고 승리를 건졌다.

캔자스시티는 1회말 알시데스 에스코바르가 유격수 앞 내야안타로 출루하고 아오키 노리치카가 몸에 맞는 공을 얻어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다.

로렌조 케인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로 기회를 이어간 캔자스시티는 에릭 호스머의 땅볼 타구 때 볼티모어 1루수 스티브 피어스의 홈송구를 포수 케일럽 조셉이 놓치는 사이 주자 두 명



만년 하위팀이었던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꺾고 29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로열스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오�클랜드 에이스를 꺾었으며 다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디비전 시리즈에서 꺾고 기적의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모두 홈을 밟아 행운의 2점을 뽑았다.

볼티모어는 3회초 라이언 플래허티의 솔로포로 한 점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번 가을무대에서 위력을 발휘한 캔자스시티 철벽 불펜진을 넘어서지 못했다.

캔자스시티 선발 제이슨 바르가스가 5⅓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초반 기세를 잡자 켈빈 에레라, 웨이드 데이비스, 그렉 홀랜드가 남은 3⅓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 NLCS(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6-4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 가을이 되

면 '좀비'(세인트루이스), '바퀴벌레'(샌프란시스코)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두 팀답게 초반부터 숨 돌릴 틈 없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세인트루이스는 2-1로 앞선 3회 무사 1·3루에서 조니 페달타의 병살타로 1점을 더한 뒤 콜튼 윙의 솔로포로 1점을 추가, 먼저 4-1로 달아났다.

그러나 3회말 연속 안타로 단숨에 2득점에 3-4로 추격한 샌프란시스코는 마침내 6회에 상대 실수를 엮어 뒤집기에 성공했다.

1사 2·3루에서 그레고르 블랑코의 땅볼 타구를 잡은 세인트루이스 1루수 맷 애덤스가 곧바로 홈으로 송구했지

만 포수 미트에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탓에 야수선택으로 4-4 동점이 이뤄졌다.

애덤스는 다음 타자인 조 패닉의 땅볼 타구를 잡은 뒤에도 1루에서 타자주자를 잡고나서 2루에 잘못 송구해 주자를 살려줬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들어 샌프란시스코가 5-4로 전세를 뒤집었다.

버스터 포지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해 6-4로 달아난 샌프란시스코는 7회부터 3이닝 동안 5명의 계투를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쳐 승리를 굳게 지켰다.

jiiks79@yna.co.kr
sncwook@yna.co.kr

'탄력 받은' 배상문, 내친 김에 2연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개막전 우승으로 2014-15 시즌을 산뜻하게 시작한 배상문(28·갤러웨이)이 2연승에 도전한다.

배상문은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 주 서머린 TPC(파71·7255야드)에서 벌어지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총상금 62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 13일 끝난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1년5개월만의 우승을 차지한 배상문은 기세를 몰아 2연승을 노린다. 역대 PGA투어에서 한국선수 2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분위기는 좋다. 배상문은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1라운드부터 나흘 내내 좌초의 샷감을 보였다.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장타력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쳤고, 퍼팅도 정확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내내 배상문을 괴롭혔던 '뒷심 부족'을 말끔히

털어냈다. 지난 시즌 1, 2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가 3라운드 이후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했던 배상문은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는 3라운드에만 7타를 줄이며 우승을 예약했다.

1년여 만의 우승으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 또한 큰 자산이다. 배상문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2승을 거두기까지 무척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3승과 4승은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번 대회에서 로리 매켈로이(북아일랜드), 마르틴 카이머(독일), 아담 스콧(미국) 등 '톱클래스'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다는 점도 배상문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문은 1라운드에서 닉 와트니, 조나단 바드(이상 미국)와 한 조를 이뤄 경기에 나선다.

이번 시즌부터 PGA투어 출전권을 얻은 신예 김민휘(22·신한금융그룹)도 출전한다.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2라운드까지 6오버파로 부진해 컷타락을 당했던 김민휘는 이번 대회에서는 컷통과를 1차 목표로 잡고 경기에 나선다.

이밖에 지난 2011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기억이 있는 재미교포 케빈 나(31·한국명 나상욱·타이틀리스트)와 2012년 신인왕 출신의 존 허(24·한국명 허찬수·한국인삼공사) 등 한국계 선수들도 도전장을 내민다.

'무적함대'의 몰락...스페인, 리우 올림픽 출전권도 놓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무적함대' 스페인 축구가 침몰을 거듭하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에 이어 이번에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21세 이하(U-21) 스페인 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스페인 카디스의 라몬 데 카란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유럽축구연맹(UEFA) U-21 챔피언십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홈경기에서 세르비아에 1-2로 패배했다.

1차전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긴 스페인은 1, 2차전 합계 1-2로 2015 UEFA U-21 챔피언십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회 연속 우승팀인 스페인은 대회 3연패의 꿈이 좌절된 것은 물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유럽 예선을 겸했던 이번 대회 본선에도 오르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스페인인 23세 이하 연령제한이 첫

도입됐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이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8강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우승 등을 기록한 전통의 강호였다.

그러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스페인 축구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 최근 계속해서 굴욕을 맛보고 있다.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0일 유로 2016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슬로바키아에 1-2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스페인이 유럽선수권 예선에서 진 것은 2006년 이후 8년만이다.

스페인인 23세 이하 연령제한이 첫 도입됐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이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8강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우승 등을 기록한 전통의 강호였다. 그러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스페인 축구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 최근 계속해서 굴욕을 맛보고 있다.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0일 유로 2016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슬로바키아에 1-2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스페인이 유럽선수권 예선에서 진 것은 2006년 이후 8년만이다. 스페인은 지난 13일 약체 룩셈부르크를 4-0으로 꺾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C조 1위 슬로바키아에 밀려 조 2위에 머물러있고 3위 우크라이나와는 승점이 같고 골득실에 간신히 앞서고 있다.

hm3346@mews.kr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SAT Academy	Business Consulting	Nail Salon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Restaurant	Restaurant	Deli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Deli	Grocery	Jewelry Business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Full Plant Cleaner	Convenience Store	병원 건물 렌트
			
Full Plant Cleaner	커머셜	비즈니스 빈자리	APT Rental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1 October 17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8

술안주의퓨전을시도하며

오빠스 키친앤바(Oppa's Kitchen & Bar)

157 Pleasant Street, Malden MA 02148
781-605-3071
www.oppaskitchenbar.com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9월 몰덴(Malden)에 한국식 주점 오빠스 키친앤바(Oppa's Kitchen & Bar)가 새로 오픈했다.

이 식당이 들어선 골목은 베트남, 타이, 중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식당이 줄지어 있어 일명 '국제거리(International Street)' 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달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진 오빠스 키친앤바는 몰덴 지역의 첫 한국 음식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넓은 바(Bar)와 다양한 퓨전 안주류를 선보이는 이 곳은 식사보다는 술과 안주에 포커스를 맞췄다. 멋스럽게 꾸며진 바에서는 마티니, 칵테일, 와인, 사케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이 제공되며 소주를 섞어 만든 각종 과일주도 즐길 수 있다.

오빠스 키친앤바의 손정일 주방장은 "미국식 바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아시안 바는 좀처럼 접하기 힘들다" 며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이색적인 동양권의 다양한 술을 제공한다" 고 전했다.

이 곳의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외국인들은 겨냥한 퓨전 안주를 출시한다는 것이다. 한국적인 맛을 유지한 채 외국인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맛을 내는 오빠스 키친앤바는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에게 인기

가 좋다.

가장 인기 있는 안주로는 닭뿔집과 양고기 바비큐(Lamb chop), 베이컨 랩드 바이트(Bacon wrapped bites) 등이 있다. 매운 음식을 즐겨먹는 아시아계 손님들은 닭뿔집이나 곱창, 감자탕 등 안주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

양고기 바비큐는 갈비 양념을 곁들여 한국적이면서도 양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맛볼 수 있어 인기가 좋다. \$10에 즐길 수 있는 이 메뉴는 사이드로 샐러드가 함께 곁들여 나온다. 베이컨 랩드 바이트는 관자, 흰살 생선 등을 베이컨으로 말아 구운 요리로 부드러운 크림소스와 함께 나온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이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7에서 \$8.50로 조금씩 다르다.

손 주방장은 "술과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안주를 구상 중에 있다"며 "외국인들도 좋아할만한 퓨전 식 안주로 다른 문화권의 손님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싶다" 고 전했다.

몰덴 지역에 거주하는 리아나 학생은 "칵테일과 수박소주를 주로 시킨다. 클럽 같은 분위기도 나서 친구들과 다같이 한국음식과 술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며 오빠스 키친앤바를 적극 추천했다.



몰덴 지하철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떨어진 오빠스 키친앤바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납세청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콜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언어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자연회	617-833-1360
대니얼스체조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뉴잉글랜드해변대자연회	617-833-1360
대니얼스체조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978-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년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도협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9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유스 교회	508-799-4488
위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핑클럽	617-331-1011
던요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록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타케이헤어디자인	781-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퀘인	617-787-1735
정윤숙미용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다지블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생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84-0002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기(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리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칼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부 D.C.	617-230-4250

배주은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리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칼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부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간병인 구합니다
8pm - 8am 까지 주 5일
T. 781-883-7970 (오후 5시이후 연락)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한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벌링톤 물안 헤어약세사리 가게 풀/파트타임 일하실 분
T. 312-350-0159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 모집

매사추세츠/뉴햄프셔지역 가족세탁 공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음, 미니밴 소유자.
TEL 929-600-351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슈퍼페어, 알터레이션 샵
이주 관계로 급매 하고저 합니다
미드타운에 있는 고급동네이며 70년 전통있는 가게입니다
일감이 많은 바쁜 가게 임
자세한 사항 문의는 연락 주세요
T. 404-751-8889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N [마사지구인]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N [구인]
하와이에서 제일 안전한 맛사지 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아가씨를 구합니다
월수입 3만 - 5만 가능 신분 확실한 분
T. 1-808-675-1022

렉싱턴 한식/일식 식당 풀/파트타임 웨이터/웨이트레스구함
T. 781-860-0171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 케비넷도어, 트림, 유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2PM, 11월 미국 4개 도시 단독 투어

(서울=뉴스1) 이한솔 기자 = 그룹 2PM이 오는 11월 미국 4개 도시에서 첫 단독 공연 '2PM 월드 투어 고 크레이지(World Tour GO CRAZY)'를 개최한다.

2PM은 15일 JYP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1월14일 뉴욕 프루덴셜 센터, 16일 로즈먼트 씨어터, 18일 달라스 버라이즌 씨어터, LA 슈라인 오디토리엄 등 미국 4개 도시에서의 단독 공연 개최를 알렸다.

달라스 버라이즌 씨어터는 엘리샤 키스 등 해외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개최했던 곳이다. 캘리포니아 주 LA에 있는 슈라인 오디토리엄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연주회장이자 아카데미 시상식, 그라미상 시상식, 에미상 시상식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는



LA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콘서트 영상 기법을 총망라한 '2PM 월드 투어 고 크레이지'는 지난 3, 4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1일 태국 방콕 공연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2PM은 오는 11월1일 중국 베이징,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각각 공연을 이어간다.

hslee61@news1.kr

서태지 크리스탈로윈 공개 직후 음원사이트 점령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서태지 크리스탈로윈이 음원사이트를 점령했다.

가수 서태지는 16일 0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9집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 타이틀곡 '크리스탈로윈(ChristMalo.win)' 음원을 공개했다.

'크리스탈로윈'은 실험적인 멜로디와 현실풍자 가사가 어우러진 곡으로 공개 직후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서태지 크리스탈로윈, 가사가 인상적이다", "서태지 크리스탈로윈,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 "서태지 크리스탈로윈, 멜로디가 너무 난해하다", "서태지 크리스탈로윈, 독특한 노래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태지는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5년 만에 개최하는 컴백공연 '크리스탈로윈'을 개최한다.

reddgreen35@news1.kr



이병헌 협박녀 이씨 "먼저 집 알아보라더니..."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씨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씨의 새로운 주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법률 대

리인은 "이병헌에게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는) 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같이 사는 동거인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병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아는 중개인이 있으면 집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그 후 이씨가 이병헌의 진한 스킨십을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녀 이씨 말 모두 사실일까", "이병헌,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이병헌, 이민정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이병헌 협박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손흥민 민아 결별, 누리꾼들 "잘 어울렸는데 아쉽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손흥민과 민아가 결별 소식을 전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결그룹 걸스데이 멤버 민아는 16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열애설 당시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였지만 그 이후 주변의 과도한 관심과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 연락 없이 지냈다"고 지난 7월 열애 인정 이후 축구선수 손흥민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민아는 이어 "팬 입장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 주길 기원하며 저 역시 걸스데이와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아와 손흥민은 지난 7월말 데이트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민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후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말았다.

손흥민과 민아 결별설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흥민 민아, 결별 소식 듣고 많이 놀랐다"

"손흥민 민아,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결별이라니 안타깝다", "손흥민 민아, 헤어졌더니 안타깝다", "손흥민 민아,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결별이라니 슬프다" 등 궁금증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손흥민 민아, 결별 후에도 서로의 팬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손흥민 민아, 결별했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손흥민 민아, 결별 이후에도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란다", "손흥민 민아, 결별했지만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 등 손흥민과 민아를 향한 응원을 보였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0월 6일 ~ 10월 12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34.2%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7.0%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2.3%

- 4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9.9%
- 5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9.8%
- 6 KBS2 해피선데이 17.0%
- 7 KBS1 KBS9시뉴스 16.1%
- 8 KBS1 가요무대 14.2%
- 8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4.2%
- 10 KBS2 개그콘서트 13.8%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그제나야 김동률
- 02 틈 소유, 권순일
- 03 손대지마 에일리
- 04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5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 06 소격동 아이유
- 07 당신만이 박진연외 2명
- 08 Home 로이킴
- 09 걱정말아요 그대 박진연, 김필
- 10 독기 아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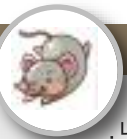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3	7			4			
		5	8			3		7
		2				8	5	
			3	1			2	8
2		1			7	6		
			2	9				1
	7			4			9	2
				5			7	8
							4	

10월 19일 - 10월 2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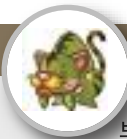
쥐띠 | 좋은 씨앗을 심어야

●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 금전: 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한쪽은 자꾸 감추려하고 다른 한쪽은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5일 주의.



소띠 | 체계를 세워서

● 운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주먹구구식으로 믿어붙어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체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애정: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관찮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20, 25일 길일, 23,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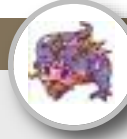
범띠 | 이제야 빛을 발하게

● 운수: 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주는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으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



토끼띠 | 뜻밖의 행운이

● 운수: 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 금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잘 어울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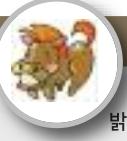
용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 운수: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자식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더 생각해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놓칠까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5일 길일, 19, 21일 주의.



말띠 |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

● 운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끔적이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과거의 일을 들추고 질질뭇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5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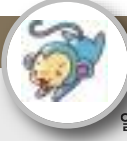
말띠 |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 운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되겠습니다. 특히 매매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 애정: 잘 보이거나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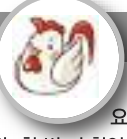
양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결혼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20,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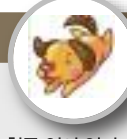
원숭이띠 | 최선의 결과가

● 운수: 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맘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닭띠 | 지레짐작하지 말고

●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개띠 | 스스로 해결하려고

●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애정: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미운정 고운정이

● 운수: 버리고 버려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이 세워둔 계획이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부딪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 애정: 자주 만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수지, 민낯 셀카 깜짝 공개 화장 없이도 무결점 외모 과시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청순한 민낯을 깜짝 공개했다.

js753@news1.kr

수지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민낯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수지는 방금 씻고 나온 듯한 모습으로 평소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풋풋한 매력을 과시했다. 특히 청순한 외모가 돋보여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한편 수지는 현재 영화 '도리화가' 촬영 중이다.

수지 민낯 사진에 누리꾼들은 "수지, 예쁘다", "수지, 피부 진짜 좋다", "수지, 대학생 같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슈퍼주니어 성민 김사은 결혼 김사은 미모 돋보이는 셀카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온라인뉴스팀 기자 = 슈퍼주니어 성민 김사은 결혼에 김사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사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렸다. 사진 속 김사은은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있는 도중 사진을 찍었는지 살짝 위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슈퍼주니어 성민은 14일 오후 슈퍼주니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12월 13일 결혼을 합니다"라며 김사은과 결혼을 발표했다.

성민의 결혼 상대인 뮤지컬 배우 김사은은 동덕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지난 2008년 그룹 바나나걸 4기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지난 2011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

누리꾼들은 "슈퍼주니어 성민 김사은 결혼, 축하한다", "슈퍼주니어 성민 김사은 결혼, 슈퍼주니어가 축하 부를까", "슈퍼주니어 성민 김사은 결혼, 진짜 결혼하다니 정말 놀랐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로 컴백

"청순 말고도 여러 가지 매력있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걸그룹 시크릿의 송지은이 신곡 '예쁜 나이 25살'로 컴백했다.

송지은은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25(스물 다섯)'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송지은은 "새 앨범을 통해 소녀에서 여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나에게 청순한 매력 말고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뮤직비디오를 보니 즐려서 나온 표정이었는데 색시해 보였다.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송지은은 1위 공약에 대해 "전국에 계신 25살 친구들과 티타임을 갖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 노래 좋다",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 대박 나길",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7)>

노비에서 보정대신이 된 김일제(金日磾) 이야기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일제의 자는 응숙(翁叔)으로 흉노 휴저왕(休屠王)의 태자였다.

BC120년 한나라 표기장군 광거병이 두 번에 걸쳐 휴저왕을 공격하여 첫 번 공격에서 흉노인 9천900명을 사살하고 제천금인(祭天金人)을 빼앗았다. 제천금인은 흉노족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기도 드리는 금으로 만든 사람 모양 신상이다.

두 번째 공격 때는 흉노의 본거지인 기련산까지 들어가 휴저왕을 비롯하여 3만명을 사살하고, 휴저왕의 왕비 알지와 두 아들 일제와 윤(倫)을 포로로 잡았다. 이 때 김일제는 겨우 14살의 어린 나이였다.

일제는 하루아침에 일국의 왕자에서 한나라 궁정에서 말을 키우는 노비로 전락하였다. 일제가 황궁에서 말을 돌본 지 수년이 지났을 때 후궁에서 연회를 즐기던 한무제가 들뜬 기분으로 황궁에서 키우고 있던 말을 보겠다고 하였다. 말을 기른 노비들이 각자 키운 말을 이끌고 한무제와 비빈들 앞을 지나가는 사연을 하게 된 것이다. 한무제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비빈과 궁녀들이 빼곡히 서있었다.

말을 키우던 노비들은 말을 끌고 지나가면서 비빈과 궁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훑쳐 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김일제는 비빈들에게 결눈조차 주지 않고 앞만 보고 한무제 앞을 지나갔으니 김일제의 기품 있는 모습에 한무제의 눈길이 가게 되었다.

비빈들 중에는 김일제의 아버지 휴저왕의 비빈들도 있었기 때문에 김일제로서는 포로의 몸으로 그들을 쳐다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다. 한무제는 김일제가 흉노 휴저왕의 왕자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황실 말을 책임지는 마감으로 임명하였다.

김일제의 아버지가 금으로 만든 제천금인(祭天金人)으로 하늘에 제사 지냈기 때문에 일제에게 김씨 성을 사성하였다. 이로써 김일제는 세계 최초의 김씨가 된 것이다. 이후에 김일제는 시중, 부마도위, 광록대부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였다.

김일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재상으로 극적인 신분상승을 하게 된 것은 김일제의 충직하고 성실한 성격이 한무제에게 크게 어필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일제의 벼슬이 높아짐에 따라 한나라 조정은 물론이고 재야에서도 김일제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황제께서 어찌 저런 오랑캐 놈을 귀하게 쓰신단 말인가” 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한나라 황실 안에서 커다란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한무제는 29세가 되던 해에 위정 대장군의 누이 위황후에게서 아들 유거(劉據)를 낳았다. 유거는 자라나면서 살

육을 좋아하는 한무제와는 달리 인자하고 관대하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무제는 원만한 성격을 지닌 유거를 총애하여 일찍이 그를 태자로 삼아 조정의 대소사를 맡기곤 하였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황실의 재정을 맡고 있던 수형도위 강충(江充)이라는 신하가 무제와 태자를 이간질하기를 자주 하였다. 이는 강충의 못된 행실을 태자가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강충을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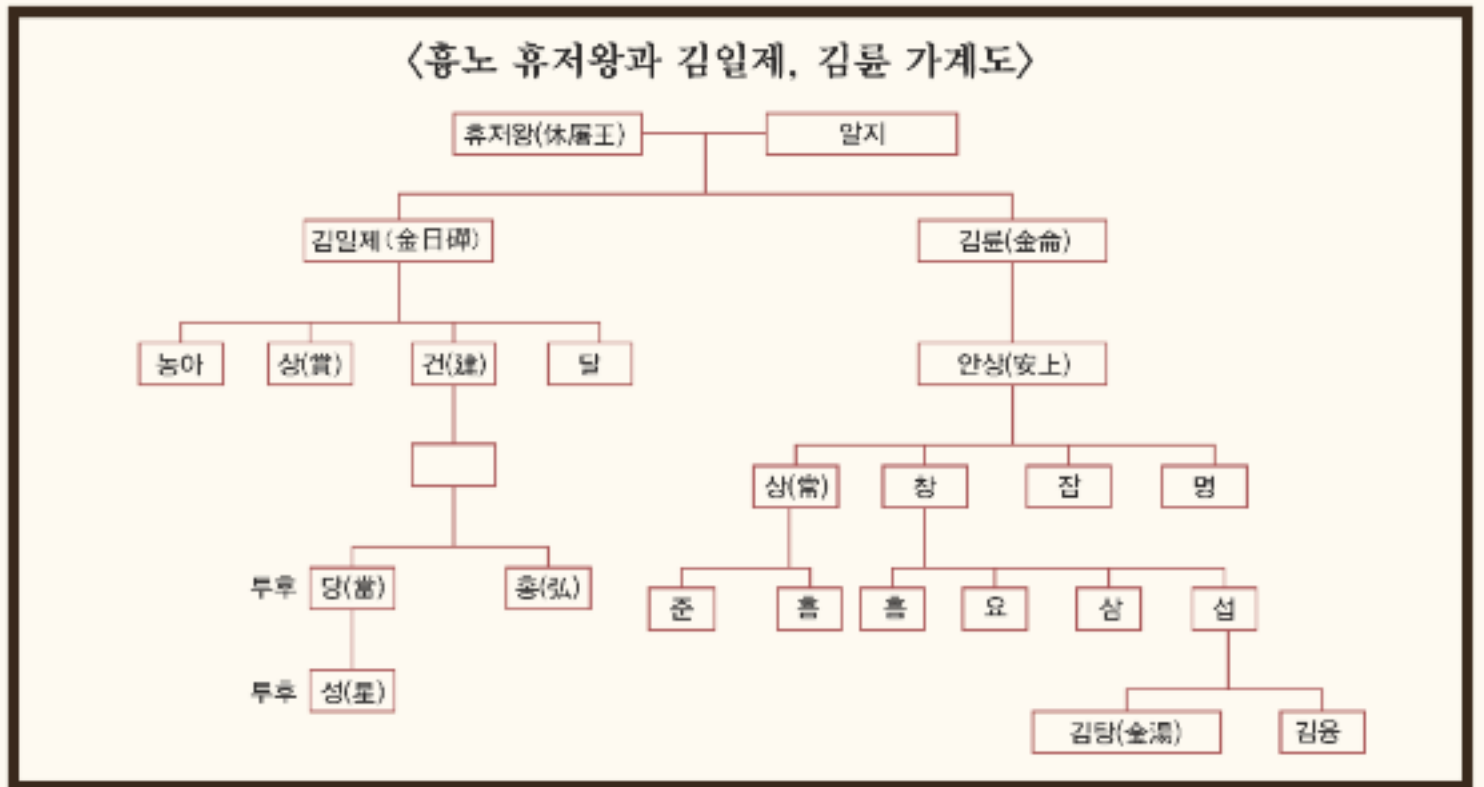
한무제는 처음에는 강충의 이간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주 강충으로부터 태자의 허물을 듣게 되자 그 역시 태자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군사를 내어 태자와 그의 두 아들, 태자비와 태자의 며느리까지 사살하였으니 후세인들이 이를 무고의난(巫蠱之難)이라고 부른다. 태자 유거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손자 유순(劉詢)뿐이었다.

시중복사 망하라와 강충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강충은 태자를 모함했고 망하라의 동생 망통은 태자를 죽인 공(?)을

란 중에 한무제도 깨어났고, 호위병들이 서로 붙잡고 뒹굴고 있는 망하라와 김일제를 향해 활을 쏘려고 하자 한무제는 김일제가 다칠까 활을 못 쏘게 하였다. 결국 망하라는 체포되었고 망하라 형제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 조정 내외에 있었던 김일제에 대한 시기와 불만을 잠재우고 김일제의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BC87년 71세의 한무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일제와 광광, 상관걸, 상홍양 네 명에게 당시 8살 밖에 안된 어린 소제(昭帝)의 후사를 부탁하면서 김일제를 투후(稭侯)로 봉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나 일제는 소제가 어리므로 봉을 받지 않았다. 한무제가 죽은 뒤 1년 후에 일제가 앓아 눕게 되고 병이 깊어졌다. 대장군 광광이 임금에게 진언하여 일제가 투후의 인수를 받게 되었으니 투후는 자손대대로 제후의 벼슬을 물려줄 수 있는 대단한 벼슬이었다. 투후의 영지는 지금 산둥성 하택시 성무현 옥화묘천으로 이 지방 사람들은 투성이라는 공식 이름대신 금성(金城)이라 부르고 있다. 흉노 사람들은 왕이 살고 있는 도성을 금성(金城)이라고 부른다. 일찍이 신



흉노 휴저왕과 김일제, 김륜 가계도

세워 출세하게 되었다. 하지만 훗날에 태자가 강충의 무고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알려지면서 한무제는 강충 일족과 그 일당을 모두 없애버렸다.

강충과 절친했고 직접 태자를 죽인 망하라, 망통, 망안성 형제는 언젠가는 자신들도 강충처럼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예 한무제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한무제를 수행하던 김일제는 망하라 형제들의 행동이 수상해서 밤낮 없이 무제의 곁을 지켰다.

BC88년 한무제가 임광궁(林光宮)에 행차했을 때 망하라가 새벽녘에 칼을 숨기고 무제의 침실로 돌진하자 김일제가 그를 끌어안고 소리쳤다. “망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 소

라 사람들이 도성 경주를 금성이라고 호칭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일제는 투후 인수를 받고 하루가 지나서(50세?) 사망했다. 그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차와 무장병을 달려 장송하니 장례 행렬이 한무제의 무덤이 있는 무릉에 이르렀다. 김일제는 위정, 광거병과 함께 한무제의 배장묘에 묻히게 되었다. 그에게 또 다시 경후(敬侯)라는 시호가 추존되었다.

김일제에게 내려진 투후라는 벼슬 이름이 신라 30대 문무왕 비문에 신라 김씨의 시조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하고자 한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생산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보에어 그룹에서
성실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찾고 있습니다.

냉장고 수리 경력자나 전기 기능사를 우대하며
“**관련분야의 관심과 재능있는 분**”은 3개월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근무지역 : Boston, MA / Pittsburgh, PA / Denver, CO / Orlando, FL

특전 : 건강보험 (Medical, Dental, Vision), 보너스, 유급휴가, 이사비용 지급, 관련분야 공대 졸업자 영주권 신청가 .

연락처 : E-mail. kyle@turboairinc.com / Phone. 310-900-1007

Turbo Air Group

Turbo Air, inc.

Texaking, Corp.

German Knife, Corp.

Premiere, Corp.

Turbo Air Cond., Corp.

Sungwoo International, Corp.

Turbo China, inc.

BFC Investment LLC.

Turbo Charitable Foundation

Oakland



Hawaii



Seattle



Houston



World Headquarters - Long Beach, California

Dallas



Chicago



Atlanta



Miami



Cincinnati



New Jersey



Pittsburgh



Kwang-Ju, Korea Plant



Texas, USA Plant



Qingdao, China Plant

www.turboairinc.com
800-627-0032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9회

모두가 제 색깔로 물들어 가고...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낙화의 시작은 열매라 하지 않던가. 오색의 단풍이 온 산천을 물들이고도 모자라 시간만 허락되면 마음마저 불러댄다. 이 계절의 절정이 단풍인 것처럼 끝은 언제나 시작으로부터이고 시작은 또 끝으로부터는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에 보았던 단풍이 어찌 오늘의 것이며 또 내일의 것이 될까. 그저 오늘 내가 있어 만날 수 있고 지금에 그가 있어 마주할 수 있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늘 언제나 시작이고 끝이지 않겠는가. 자연은 늘 이렇게 우리 곁에서 많은 깨달음을 일러준다. 그 깨달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인 것을 말이다.

초록이 무성할 때에는 산천에 보이는 들풀들이 꽃잎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모두가 푸르기만 하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샛길에서 늘 새로움을 만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물먹은 여름 나무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다 가을 햇볕 아래 제 몸을 내어놓을 때쯤이면 하나둘씩 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여름내 산을 오르면서도 진초록의 풀향이 그저 좋았지 저 나무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그 외의 이름들을 외울 필요가 없었

다. 물론 버섯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무에 대해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울긋불긋한 산천을 바라보면 어찌 저리도 고울 수가 있을까 싶어 차마 눈물이 고일 때가 있다. 산 아래에서 보지 못했던 가을 풍경을 산 정상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참으로 내게 새로움이기도 하고 놀라움이기도 하다. 온 산천을 물들인 그 오색 단풍이 노랗고 빨갛게 무리를 지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에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구나, 이 나무들도 혼자만이 아닌 제 짝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마음에 어찌 이리도 우리네 삶과 그리고 인생과 닮았을까 싶어 또 신기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어떤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잎이 떨어지거나 설령 퇴색될지언정 제 색깔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치이다. 결국, 모두가 제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과 마주해본다. 때로는 자신의 삶의 색깔과 모양을 제대로 찾아볼 사이 없이 타성에 젖거나 이끌려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 나는 진정 무슨 색깔을 지녔으며 또 어떤 모

양으로 있는 것인지 자신 스스로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어떤 보편적인 교육 환경에서가 아닌 진정한 나의 색깔과 모양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엇그제는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웃음 띤 얼굴로 요즘 유행한다는 어느 유행가 제목을 찾아 유튜브에서 들려준다. 어느 60대 어르신 의 자작 뮤비라는데 가사가 기가 막히다. 정말 흐르는 유행가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진솔한 그런 가사여서 가슴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너는 늙어 봤나? 나는 젊어 봤다!'라는 내용의 유행가였다. 어쩌면 이 가을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번쯤 독백처럼 특 내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말은 아니었을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 더욱이 사색적인 계절이고 무엇인가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낙화의 시작은 열매인 것처럼.

산천의 울긋불긋 물든 단풍처럼 우리는 모두가 제 색깔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젊어서 제대로 내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색깔

이 얼마만큼 제 빛깔로 반짝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의 색깔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하모니를 이뤄 더욱 아름다운 산천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때가 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닌 다른 이에게도 득보다는 실을 실어주는 것이다. 결국, 서로 시간의 낭비이고 허비인 까닭이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미리 하면 더욱 고운 빛깔로 제 색깔의 단풍을 물들이지 않을까 싶다. 가끔 곁에서 고운 빛깔의 어른들을 보면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마음이 편안해 좋지 않던가. 어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을까. 이처럼 어른들의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에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도 없을뿐더러 넘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니던가. 이 가을 넉넉해서 좋고 풍성해서 좋은 그런 누림이면 좋겠다. 내게 없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누림의 계절이길 소망해 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축제, 가을 운동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 가을답지 않게 날이 짓궂었다. 바삭 바삭하던 낙엽이 모두 젖었다. 가을운동회날은 청명해야 즐겁다.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비가 오면 운동회는 망친다. 누가 푸른 하늘을 보여줄 겐가.

가을운동회, 가슴 설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는 가을 운동회를 시골도 도회지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서 맞았다.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 학교 운동장에서 넉넉히 운동회를 치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찬합에 김밥과 찬을 담아왔다. 뜨뜻미지근한 칠성사이다도 있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맞보는 별식에 운동회를 기다렸다. 게다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나섰다. 모처럼 모일 수 있는 기회였으니 동네 어르신들 빠질 수 없었던 거다. 당시엔 뭐 그리 대단히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었겠는가. 단체관람이 있었겠나. 그저 동네에 결혼식이나 초상이 났다면 한번씩 모였을까. 너른 마당에 차

일을 치고 잔치국수에 떡과 막걸리가 돌았을 테니 말이다. 애어른 할것 없이 모두 모였다. 가을 운동회는 또 다른 동네 축제였던 거다.

소설가 이청준의 축제, 영화는 임권택 감독이 안성기를 주연으로 삼았다. 어머니 장례를 치루면서 가족간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다. 산자와 죽은자가 어울려 먹고 마시고, 마음에 담았던 걸 털어놓았다. 울고,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 소리내어 전승하는 거다. 소설과 영화에서 장례의 절치는 대화창구이고, 떠나고 보내는 시공간이었다. 산자와 죽은자가 화해하고, 산자와 산자가 어울리는 시간이었던 거다. 오히려 축제였다. 난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봤다. 가을운동회와 장례는 다르지 않다. 운동회가 초대받고, 운동회가 떠들썩한 축제였던 거다. 참 떠나가는 분을 부르는걸 초혼招魂이라 던가.

운동회에선 왜 청군과 백군인가. 청군에 흥군이든지 아니면 흑군과 백군이든지 이래야

맞는것 아닌가. 그리고 왜 만국기가 항상 펼쳐졌는지. 이북 인공기는 없었을 테고, 일장기가 있었던가. 그건 기억할수 없다. 기차표 운동회를 신고 뛰었을 게다. 발표였던가. 나 이키는 아니었다.

서울로 돈 벌러 간 엄마 대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함께 갔던 언니는
시민회관 창틀에 매달려 눈물을 떨구던 내게
가을 운동회 날 꼭 오마고 약속했지만 단풍이
흐드러지고 청군 백군 깃발이 휘날려도
끝내, 다녀가지 못하고
인편에 보내준 기차표 운동회만/먼지를 뒤
집어쓴 채 토닥토닥
집으로 돌아온 가을 운동회날
(안현미, 기차표 운동회 중에서)

봄에는 소풍이고, 가을에는 운동회였다. 봄 소풍날에는 비가 자주 왔는데, 가을 운동회는 항상 날이 청명했지 싶다. 우리학교만 그랬나. 학년이 높은 애들이 뒷담화로 말했다.

'학교 소사 아저씨가 학교우물에서 발견한 뱀을 죽였다. 그래서 봄 소풍날이면 비가 온다.' 승천해서 용이 되어야 하는 뱀을 죽였기 때문에 앙갚음 하는 거라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걸 보고 놀랐단다. 외국인이 보기에 어색했던 모양이다. 이걸 문화의 다름이라 봐야 하지 않겠나. 멀리서 온 문상객들 더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한다. 빈속으로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쓴 소주에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건 아름다운 풍습이다. 게다가 떡이라도 몇 조각 싸서 보내야 한다. 집에서 떡을 눈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2014 ReNEW

Revive the New England Wave

www.renewusa.org

함께 걷는 사랑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벧전 2:21)

2014. 11/27 Thur - 29 Sat 2박3일 Thanksgiving Holidays
@ DoubleTree by Hilton Hotel in Danvers, MA

Speakers



오대본 David Ross 박사,
Ellen Ross 서모
신학대학원장



송병주 박사
신학대학원장



김도현 교수
Concordia University
신학 대학



민명기 박사
신학대학원장
Dean Theological Seminary
(Korea)



박소영 교수
신학대학원장
Korea



서명구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Management & Capitalization 교수
대학원장



최성호 대표
Korea



김재원 아나운서
방송 아나운서



김종환 목사
신학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하신주 선교사
신학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Program

	27(목)	28(금)	29(토)
06:30-07:30		서백기도	
07:30-09:30	도착등록	조별모임	
09:30-11:30	Opening 메시지 오대본 목사	학생간증	학생간증
11:30 (15)	Orientation	성경강해 1 김도현 교수	성경강해 2 김도현 교수
11:30-01:00		찬양식사	
11:30-01:00	세미나 1	Forum (영년, 교회의 길을 본다)	세미나 3
02:30-3:30	체크인	Family Time (or Talkshow)	파송 메시지 오대본 목사
03:30-04:00	Thanksgiving Celebration (Special guests)		ReNEW Festival (Glanwed)
04:15-05:30		세미나 2	
05:30-07:00		저녁식사	
07:00-07:30	크리스천의 삶 박소영 교수	크리스천의 삶 서명구 교수	
07:30-10:30	저녁메시지 1 송병주 목사	저녁메시지 2 송병주 목사	
10:30-11:30	조별모임	P&P / 조별모임	

등록비안내

성인 1명 기준	1차 (10/19)	2차 (11/15)	3차 (11/22)	유명사내
4인 1실	\$ 199	\$ 229	\$ 269	0-2세 무료
2인 1실	\$ 249	\$ 279	\$ 309	3-4세 \$ 60
1인 1실	\$ 339	\$ 369	\$ 399	5-12세 \$ 120
				13세 이상 \$ 199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집회 기간중 0-2세 영아를 위한 Nursery 공간이 마련되며, 자녀들을 위한 Kids ReNEW와 Youth ReNEW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문의: renewregister@gmail.com
ReNEW 2014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ReNEW Homepage를 참조해 주세요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2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서는 이른바 박도朴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쌍검은 단도短刀를 택하여 사용하였고, 마상쌍검은 요도보다 짧은 것을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가끔씩 마상에서도 7척이나 되는 긴 쌍검을 휘두르며 적을 쓰러뜨린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마상에서는 짧은 칼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용이하다. 무예도보통지 '쌍검편'에는 '무편武編'을 인용하여 검을 쓰는 자세와 방법 및 검법劍法에 대하여 13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셋째로 마상월도馬上月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본다. 마상월도 역시 보병들의 월도와 같다. 칼자루의 길이가 6자4치(약 195cm), 칼날의 길이가 약 85cm, 무게가 2kg가 넘는 초대형 칼이다. '삼재도회三才圖會' 따르면 "칼을 쓰는 데는 왜인들만큼 묘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칼을 쓰는 법에는 몇 가지 기예가 있다. 수가 높고 파하는 법을 알면 방어에는 무난하다. 오직 관운장(관우)의 언월도는 칼의 위력이 원래 대단히 크며, 그 36도법刀法은 '병장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르는 이가 없다. 칼 종류로는 이 언월도를 제일로 삼는다. 특히 마상월도는 길어야 한다. 모름지기 앞으로는 말머리를 넘어야 하고, 뒤로는 말꼬리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검록刀劍錄'에는 "관우는 유비를 소중

히 여겨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 스스로 도산都山(즉 무도산인데 면죽현에 있다)의 철을 채취하여 두개의 칼을 만들어 새기기를 만인萬人과 공패公敗라 했다. 공은 애석하게도 몰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칼이 세속에서 말하는 '청룡언월도'이다. 청룡이라 함은 춘추번로검에 있는 좌청룡상을 말함이며 언월의 법法은 용의 입이 칼날을 물고 있다. 칼날 가운데 용이 구슬을 물고 있는 것을 새겼는데 불꽃과 같은 기氣가 있어서 아주 명명하였다.

마상월도에서 사용하는 두가지의 칼을 언월(雁月(누운 달이라는 뜻)과 미첨(眉尖(눈썹의 끝모양)라고 하는데, 모두 칼날이 넓고 자루는 길고 그 사용법은 같다. '무경武經'에서는 언월도를 칼의 제일로 삼는다. 또한 도요도미히데요시는 미첨도를 사랑하여 항상 그의 좌우에 배열하였다고 한다. 모원의는 언월도는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상순(尙順)은 미첨도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무예도보통지에서는 혹시 옛날과 지금의 사용방법이 매우 달랐지 않았을까 하고 의구심을 나타낸다.

임진왜란 때, 계사년(1593년) 정월에 이어송이 우리의 관군과 의병들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때는 울산의 도산전투에서 명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활약

하여 승리하였다. 이 당시 군관민 모든 사람들은 관운장의 영령이 나타나서, 즉 관우의 신위神威가 분기하여 왜인들의 묘기妙氣를 모조리 쓸어버렸다고 믿었다. 관운장이 저승에서 도와줘서 우리나라에 면면하게 계승되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동방원정군(명나라 지원군)들은 사당廟을 짓고 영혼을 달렸다. 무술년(1598년)에 명의 신종황제가 비용을 내려 승례문 밖에 사당을 세웠다. 또 1600년에도 황제가 금전을 내려 흥인문 밖에 사당을 짓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임금 선조와 제장수들이 참배하였고 황제의 칙명으로 '현령소덕관공지묘顯靈昭德關公之廟' 라는 편액을 세웠다. 무릇 왜인들의 칼잡씨도 언월도의 휘두름 아래서는 피할 곳이 없었기에 언월도가 천하 제일임이 헛말이 아니다. 애석한지고, '36검법'이 전해지지 않음이어!

85) 정유재란 때 원정로서 활약한 명나라의 양호를 기리기 위하여 1598년에 제작된 거사비가 현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1993년4월3일)되어 학교법인 명지학원(서대문구 남가좌동)내에 있다. 이 비 외에도 양호를 기리는 비는 대신고등학교(종로구 행촌동)내에도 있다.

둘째로 마상쌍검馬上雙劍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위에서 사용하는 쌍검은 보쌍검, 즉 보병들이 사용하는 검과 같은 요도腰刀이다. 쌍검으로 '검'의 용어를 썼지만 마상쌍검에 사용한 칼은 '도'이다. '검劍'은 양날의 칼을 말하고 '도刀'는 외날의 칼을 일컫는다. 또한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이르기를 "검에는 좌청룡상이 있고 도에는 우백호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은 한 쌍의 칼을 말할때 쓰이고, 도는 단도單刀를 칭할 때 자주 쓰인다.

'열사전烈士傳'에 보면 "검공劍工 간장干將이 진흥나라 임금을 위하여 검을 만들었는데 검에는 자웅이 있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고서들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검'은 양날의 자웅의 칼이고, '도'는 외날의 칼을 한 자루로 사용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마상쌍검에 쓰인 요도는 길이가 2자5치(약75cm)이고 칼자루 길이는 약 17cm이며 무게는 300g 정도이다. 모원의의 茅元儀의 '무비지'에는 "요도가 단도와 수도手刀와 대략 같으며 말 위에서 실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수도手刀는 칼날이 넓으며 칼끝의 등이 휘었고, 칼자루 끝에 작은 고리가 있어서 세속에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전쟁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6)

— 미나미총독의 황민화(皇民化) 정책 —

미나미 총독의 조선통치정책은 한마디로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이었다고 하겠다. 그가 1차적으로 내놓은 것이 "한국어 말살정책"이다.

1937년초부터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본어를 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일본어 상용의 명령은 참으로 엄격했다. 학생이 한국어말을 하게 되면 국어상용(國語常用)이라는 목패를 목에 걸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 목패를 개패라고 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서로 꼬서 가며 한국어말을 하게 한 다음 자기목에 걸었던 국어상용이라는 개패를 그에 개 걸어주는 것이다. 목에 개패를 걸고 다녀야하니 볼썽이 사납다. 심상소학교 6학년 때 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학생이 걸고 다니던 "국어상용"이라는 목패를 변소에 던져 버렸다.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가 온통 난리가 난 것이다. 주

재소(경찰관 파출소)에서 순사가 왔다. 학생들을 밤까지 학교에 잡아놓고 조사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가 않았다. 몇몇 큰 학생이 주재소로 끌려갔다는 말이 있었다. 미나미 총독은 1938년 3월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모든 소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의 교육을 금하게 했다. 그리고 종래의 보통학교제도를 심상소학교로 개정하고 교육을 일본어로 실시하게 했다. 일본어 상용은 학생에게만 강요하던 것이 1938년에는 모든 관공서가 다 일본어 전용으로 돌아섰다. 미나미 총독의 한국어 말살정책이었다. 그러나 생활상의 언어가 그 잘난 법규나 명령으로 쉽게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1942년 최현배선생 등 30여명이 한글 파동으로 체포되어 함흥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조선어 학회사건"은 역사상 너무나 유명하여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치 않기로 한다.

미나미 총독은 언어말살 정책만 가지고서는 조선사람의 인식을 바

꾸어 놓기가 어려워던 지 1937년 10월10일에는 "황국신민지서사"(皇國臣民之誓詞)라는 즉 "我等와皇國臣民 나리 忠誠뫼데 軍國 나 報젠"(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을 다하여 군국에 보답한다)라는 표어를 내세워 선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확고한 민족사상이 그 같은 법칙이나 명령만으로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천년의 유교전통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자기 집을 충실히 지키고 나아가 자기 나라에 충성하라는 교훈이 었지 남의 나라의 왕에 충성을 바치라는 말은 아니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바친다고는 하지만 누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의 왕에 충성을 바치려하는 자가 있겠는가 진실로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역적일 것이다. 식민지의 백성이라 "우리는 황국신민이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말로만 외치는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것이 었다.

— 신사참배 의 강요 —

미나미 총독은 "황국신민화 정책"이 잘 준행되지 않자 조선사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총독부의 학무국은 1937년 초에 모든 조선학교에 일본왕 내외의 사진을 배부하여 봉안전(奉安殿)에 모셔놓게 하고 항상 배례하라고 명령했다. 신사참배를 아니하는 학생은 가차없이 퇴학처분해 버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는 그 교장을 처벌하는 한편 그 학교를 폐교시켜 버렸다. 평양의 송실전문학교, 송의여학교, 선천의 신성중학교 등 기독교의 9개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 3월 폐교 당하고 말았다. 일본 왕조의 신이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와 메이지천황을 제신으로 모셨다는 조선신궁이 남산중턱에 세워진 것은 1925년 이다. 일본은 조선의 도청소재지마다 신사를 세웠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본민만이 참배하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38년경 부터는 전 조선사람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다.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

행하는 수단이었다. 평양의 능라도 교회의 손양원목사는 체포되어 평양경찰서에서 일본경찰관이 심문하기를 "박사와 교수가 다 신사참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 왜 당신만이 신사참배를 아니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요" 하고 다구치자 손목사는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우상숭배를 결코 용납지 않는다. 나는 목사다. 구약성경 중 제1계명에 하나님이나 이외의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치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이다. 박사나 교수는 지식인 일지는 모르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15TH ANNIVERSARY REUNION CONCERT



Newark, New Jersey

SUN. NOVEMBER 9, 2014 8PM PRUDENTIAL CENTER

Los Angeles

FRI. NOVEMBER 7, 2014 8PM STAPLES CENTER

뉴저지 뉴욕 공연 | **교차로** 뉴욕 교차로 신문사
티켓 판매처 | **Tel. 718-460-0114**

티켓 가격 \$54.75 | \$74.75 | \$94.75 | \$124.75 | \$154.75 | \$184.75 | \$204.75

주최



주관



후원



특별후원



연출

SHOW DIRECTOR KORE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마법의 성’의 공주가 내 딸을 잡아먹었다 (올바른 성교육 V, 사춘기 여아 13세-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춘기의 여아들은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변화되는 성(性) 정체성의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어릴 적부터 사회가 여아에게 준 암시적인 양면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젠 여자 남자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외모와 행동은 마법의 성의 공주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마법의 공주처럼 행동을 하면서, 똑똑하고 능력까지 있는 여자가 되라는 메시지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의 Thomas DiPrete 교수는 “The Rise of Women”의 책을 통해 말한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기 안에서 엄청나게 변화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 1970년대의 조사 결과, 남학생의 대학 졸업률은 20퍼센트, 여학생은 14퍼센트였는데, 2010 자료에 의하면, 여학생이 36퍼센트, 남학생은 27퍼센트이다. 유치원부터 여학생이 행동 면에서, 학업 면에서, 사회성에서 남학생 보다 성숙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최근 한해 1000여 명이 넘는 여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의사협회에 등록된 여자 의사는 2만2938명으로 전체 29.245%를 차지하고, 의대 여학생 수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고대 의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대 수석졸업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연세대 의대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의대 졸업 수석자가 모두 여성이었다. (중알일 보헬스미디어, 2012)

이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마법의 성의 공주로 묶어두어야 할까? 마법의 성의 공주는 마법이 풀리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게 된다. ‘마법의 성’의 노래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가끔 꿈속에서나 공주를 구출하려 마법을 부리는 왕자를 위해 마법의 성에 갇혀 자신을 가둬두며 사는 공주는 능력 있는 여자가 될 수 없다. 자

신이 깨어지고, 무너질 지라도, 마법의 성에서 뛰쳐나와 스스로 세상을 날아다녀야 한다. 페기 오렌스타인은 ‘신데렐라가 내 딸을 잡아먹고 있다(2013)’를 통해, 마법의 성에 갇혀 사는 공주보다 직접 ‘자기 성’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 오히려, ‘건강하게 누리는 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딸아이가 여자아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문화를 통해 배운 건 무엇이였을까? 딸아이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능력 있고 강인하며 창조적이라는 혹은 똑똑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혹은 원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보는 여성의 ‘성 정체성’은 아직 성적 대상화 및 성 상품에 노출된 ‘소녀 문화’를 고집하고 있다.

이 ‘소녀 문화’의 공주처럼 예쁘고, 여성스럽고 섹시까지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는 여아들은 여성성의 특징으로 ‘나르시즘’과 ‘물질주의’에 젖는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욕망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는 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혹은 욕망을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성적권리가 남자를 애태우고 흥분시키는 ‘성 대상화’로 되는 것이라 여기게 되는 것이다. 남녀 관계에 있어, ‘성 대상화’의 관계가 주는 순간적 흥분과 희열을 성적권리라 여기는 것이다. 자기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아닌 ‘소녀’로 고착되며, 진정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성(性)’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춘기를 겪는 여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Estrogen)이 늘어나면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고, 그 기복을 나르시즘이라는 ‘자아 도취’로 대체하기 쉽다. 대뇌 변연계(Limbic system)감정 및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Amygdala)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감정적인 발달은 어릴 적의 단순한 감정 경로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복잡한 감정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지는가에 훨씬 예민해진다.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충고나 칭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또래 집단의 평판과 소속감은 사춘기의 여아의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호르몬 변화 못지않게 가슴이 커지고 몸매가 여성스러워지면서 스스로 자각하는 신체적 변화가 부끄러워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시각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자연스레 자신과 타인의 외모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사회가 준 양면적인 메시지와 여성 호르몬의 감정적인 복잡성이 겹치면서, 사춘기의 여아가 자칫, ‘성 대상화’가 되는 것이 사랑 받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마법의 성을 뛰쳐나가기 보다는 환상의 공주의 대상화를 이상화(Idealization)하며, 외모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정의가 사랑을 하는 행동보다 사랑 받는 대상에 있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더 사랑 받으려면 더 인기가 있어야 하고, 더 섹스 어필이 되어야 한다고 믿을 것이다. 또한,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남자라도 멋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민한 시절에, 부모가 조금 살이 오르고 있는 사춘기 여아에게 “살이 찌면 안 예쁘다”라며 “살을 빼라”, “여자는 얼굴이 날씬해야 예쁘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로리는 살 빼라는 말을 툭 하며 던지는 아버지의 말에 예뻐지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살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예뻐진다는 칭찬을 많이 했고, 몰라보게 살이 빠지면서 거식증에 빠져있는 딸을 발견했

다. 이미 토하기와 음식거부가 심각해져 있었고, 그 거식증을 고치는데 일년의 치료 과정을 겪어야 했다.

젤리의 부모는 딸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더 예뻐지겠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지 않다는 딸을 설득해 여름 방학에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하고 난 후, 공부에 충실했던 딸이 공부보다는 외모와 명품에 신경을 쓰며, 남친까지 생기는 통해 큰 곤욕을 겪었다.

제니는 친구 생일파티에서 만난 폴을 만나 후 공부는 뒷전이고 폴과 이야기 하느라 매일 휴대폰에 매달려 살았다. 새벽 두 시, 세 시까지 통화를 하며 학교를 가는 통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격심하게 신경질적으로 변화하는 딸과 매일 같이 싸움을 치르며, 엄마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제니는 테라피를 통해 폴은 남자답게 과격하며 잘생긴 용모에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그 면이 너무 좋아 사귀었지만, 진실성이 없고, 자기를 토크하면, 무시했고, 다른 여자 아이들과 사귀며,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음을 이야기 했다. 폴과 관계가 끝난 후 제니와 엄마는 관계를 회복했고, 학교 성적과 생활이 다시 좋아졌다.

사춘기 여아들은 마법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다. “꿈에나 만날 수 있는 왕자일지라도, 잠시 하늘을 같이 날 수만 있다면, 마법의 성에 갇혀있어도 좋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법은 환상이기에 영원할 수 없다. 사춘기의 여아에게 ‘마법의 성’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자신의 ‘성’을 갖게 한다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존감은 올바른 성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다음 칼럼을 통해, 사춘기 여아의 자존감과 성교육을 이야기한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4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500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만원 → 200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만원 → 350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만원 → 350만원	안면윤곽술 (턱골) 450만원 → 350만원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1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2) 부자처럼 투자하기

미국 고등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데카(DECA)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는 모임입니다. 일 년에 한 번은 전국에서 약 17,000명이 모여 여러 분야에서 경쟁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처럼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하는 투자를 원합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부자하는 데로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주식 투자와 뮤추얼 펀드 투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고등학생들도 부자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단지 몇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돈이 없기에 선택하는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많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 그 중에도 경비가 저렴하고 수익률을 더 높을 확률이 있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투자하는 종목에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더 위크(TheWeek.com)에 발표된 내용(shiny lumps of metal)은 부자는 생산성이 있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금”과 같은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조사는 부자(90% 이상이 자기 집 소유)들은 주식은 물론 부동산에도 투자하지만 연 수입이 \$30,000 미만인 가난한 사람들은 “금”이 장기투자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100년 혹은 200년 역사를 보면 주식 투자가 다른 어느 투자 종목(채권, 금, 은, 커머티티, 현

금, 부동산, 등)과 비교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회사의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배당금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은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관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는 매우 다르다고 배리 리솔츠(Barry Ritholtz)가 불룸버그뷰에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후 부자들도 주식투자에 많은 조심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투자와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저자는 요약하기를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며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금”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관적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은 유동적이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식은 그저 휴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이 무려 220% (시카고 모닝스타 투자 연구회사)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50만 불 투자가 \$159만 불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부자들이며 투자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마음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주어진 환경이나 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낙관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한 푼 두 푼 저축하며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100만 불이 필요하다면 수익률 8%로 가정

하면 매달 다음과 같이 저축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25살이면 \$286, 35살이면 \$671, 45살이면 \$1,698, 55살이면 \$5,466을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하는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자그마한 금액일지라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세월이 다가옵니다. “투자는 어디에 하느냐?” 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It is the time value of money).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꾸준한 투자가 부자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 한국 주택의 양도

미국 시민권자인 김태백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즉, 한국의 비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1년을 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요?

이번 주는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대1주택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한국의 비거주자인 김태백씨가 한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법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비거주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김태백씨와 같이 현재는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양도시점에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1세대1주택’이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한국에 1주택을 보유하고,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반드시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때 보유기간(2년 이상)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김태백씨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한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의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자란?

결국 핵심은 김태백씨가 한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참고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거주자가 되지만,
-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직업을 갖고 2년을 거주하면 거주자로서 2년을 거주한 것이지만, 직업 없이 거소를 두고 2년을 거주하면 첫1년은 비거주자로, 그다음 1년은 거주자로서 거주한 셈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김태백씨는 최소한 2년 (또는 3년)을 한국에서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한국의 주택 양도와 관련해 한

국에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미국의 세법에도 main home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main home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팔면 그 양도차익 중 \$250,000(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500,0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택이 어느나라에 있는 main home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태백씨가 main home의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250,000(또는 \$500,00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에서 검토한 한국과 미국의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1세대1주택 규정과 미국의 main home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주자 상태로 최소한 2년은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육(肉)

“살리는 것은 영(靈)이니 육(肉)은 무익하니라 내(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요한복음 6:63

말씀이 육신(肉身)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or the Only Begotte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1:14

16일 서울의 한 언론기관이 동성애(同性愛)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총 91명의 응답자 중 동성애 인정이 11명(12.1%), ‘법 처벌해야 한다’가 80명(87.9%). 카톨릭 주교회의는 그 동안 죄악시 해왔던 동성애(同性愛)를 종교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시노드(synod: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개인의 성적(性的) 생활 영역을 넘어 사회 정치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성적(性的) 소수자 권익문제로 등장했다.

“동성애를 경험한 남성이 37%”로 밝힌 1948년 칸제이 보고서를 발판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사랑할 권리라는 보편성을 내걸고 법적 지위도 향상되기 시작했던 것. 미국정신의 학회는 1973년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지워 버리기도 했다.

한국의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동성애 못지 않게 이성(異性)간 육체접촉도 두드러진다.

하룻밤 사이에 서울 시내에서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더듬거나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들이 소동을 피웠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준강제 추행)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차(車)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차 경장의 혐의는 버스 앞자리에서 술에 취해 졸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를 받고 있다. 차 경장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물론 차 경사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은 날 밤, 서울 종로경찰서도 밤 11시 넘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서울지방 경찰청 101 경비단 소속 엄 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 경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4%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과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수치다.

술은 음식이지만 예사 음식과 구별되기에 주도(酒道)와 음주법(飲酒法)이 있었던 것이다. “술 마실 자적이 모자란 사람들이 설치니 한국사회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린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기도.

‘증권이 찌라시’를 이용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악의적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일본 산케이(日本產經新聞)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희(59) 씨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이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와대 출입기록에 의한 정윤희 씨 출입 흔적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가토 지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조사 내용을

종합,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 사실임을 지적,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가졌다. 2007년 후 7년만이다.

이번 군사회담은 지난 7일 북경비정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남북합정이 사격을 주고 받는 일이 벌어진 직후 북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군 당국간 긴급접촉을 요구해 이뤄졌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남북간 육접촉(肉接觸)이 잦은 것은 관심을 모은다.

肉(육): ○1肌也기아-살육 ○2滿也만아-찰유(물이 그릇에 가득 차듯이).

肉은 피부 또는 사람의 육체를 뜻하는 동시에 그 피부에 살(肉)이 가득 채워진 건강한 몸을 뜻한다.

따라서 성경(聖經)은 천지창조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from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Then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rom she was taken out of man.” -창세기 2:22,23

물론 여자 육체의 원료가 된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榮)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창세기 2:7

하여 주 예수님 말씀이 영과 육이 같이 담겨 있는 진리(眞理)의 말씀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6

肉자를 뜯어 보면 “一: 遠界원계” 안에 아래 위로 두 사람(人)이 겹쳐 있다. 이들 두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밝히 증언하신다.

이 칼럼 머리에 언급하였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肉은 무익하니라” 이어 “내(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肉자가 향하고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즉 영계(靈界), 다시 말해 肉을 벗어 버린 영원한 ‘영혼의 세계’ 즉 ‘불멸의 영원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肉자 윗부분 人자, 즉 영원한 세계의 바깥 부분을 내다 보고 있다.

반대로 아래 人자는 숨이 끊어지면 시체로 변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명백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이른 말(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이 ‘영원한 생명(永遠生命)’인 것을 잊지 말라는 약속, 성경(The Holy Bible)을 잊지 않으면 죽어도 예수님 만나 영생(永生)으로 되살아난다는 것, 다시는 어떤 죽음도 범접하지 못하는 ...!”

아직 시체를 묻어서 못 찾은 세월호 희생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목소리, “내 말이 靈이요 生命이니라”를 기억하시기를!!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5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하버드 도서관과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카데미 도서관이 하버드 도서관이다. 하버드 도서관은 총 7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만 1,890만권(18.9 million volumes)이고 1000만개 사진, 4억만권의 사본 항목(Manuscript items), 174,000개의 잡지 등 무수히 많은 필름, 잡지, 도서,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인력만 1000명이 넘고 도서관들의 개관 시간과 닫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와이드너 중앙 도서관(Widener Library)은 1907년 하버드를 졸업한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Harry Elkins Widener)(책 수집가)가 1912년 타이타닉 침몰 시 사망하자 그를 애도하고 기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 동안 모든 책들과 도서관 건물을 지어서 1915년에 기증한 것이다.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와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서치 논문과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하버드 최고의 도서관이다. 약 20년전에는 일반인들도 도서관 입장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버드와 관련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만 오픈되고 있다.

하버드 학부생들에게 인기 있는 도서관으로는 카보트 과학 도서관(Cabot Science Library), 라몬트 도서관(Lamont Library), 그리고 와이드너 도서관(Widener Library)이다. 하버드 도서관들은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서관들마다 특징과 전공별로 도서관이 잘 보존, 관리되고 있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리서치를 하기 쉽게 되어 있다. 하버드를 방문하여 중앙 도서관 투어를 하고 싶다면 하버드 학생, 연구원, 교수 등 하버드 아이디가 있는 한명이 최대 4명까지 도서관 투어를 해줄 수 있다.

하버드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많은 박물관들을 소유하고 있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고대 유물, 역사적 연구가치가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하버드 아트 박물관은 아더 섉클러 박물관(Arthur M. Sackler Museum), 부쉬레이싱어 박물관(Busch-Reisinger Museum), 포그 아트 박물관(Fogg Museum of Art) 등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고대, 아시아, 인도, 유럽, 중동 지역의 예술 작품들을 무수히 소장하고 있다.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Harvard Museum of Natural Science)은 하버드 광물학 및 지질학 박물관(Harvard Mineralogical and Geological Museum)과 하버드 비교 동물학 박물관(Harvard Comparative Zoology)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 학생 및 성인들에게도 박물관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매주 제공한다. 물론 하버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중 고대사, 자연사, 박물관학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인턴으로 도움을 주고 하버드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직접 일반

인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육을 한다. 피바디 고고학과 인종학 박물관(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은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으로 고고학과 관련된 가장 크고 오래된 박물관중의 하나로 고대 잉카, 마야, 아즈텍과 관련된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그 역사를 쉽게 설명해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버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중앙 도서관, 피바디 박물관, 법대, 경영대, 의대 캠퍼스 방문을 강력히 추천한다. 하버드는 우수한 학업 성적만이 아니라 역사, 공동체 의식,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다. 하버드 피바디 뮤지엄에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하버드는 이기적인 교육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하버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바디 박물관의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같은 동네의 아이 친구들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버드 학생 두명과 전문가가 환영하며 박물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들의 영어 이해력과 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파악한 후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단어와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설명해주는 전문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특정한 도구와 교육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설명하고, 아이들이 당시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었고, 지루한

역사적인 사실을 재미있게 아이들이 추측하게 하여 답을 찾는 방법으로 지도한 점이 너무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한 팀이 되어 박물관이 제공한 여러가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고대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당시의 복장을 입고 모든 아이들이 그때의 악기들을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점은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방문 후 아이들에게 고대 마야, 아즈텍, 잉카와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했을 때 거부감 없이 즐겁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학생들과 전문가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을 때 역사공부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물어보면 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후 더욱더 열심히 아이들 준비시켜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버드는 공동체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이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때는 교수가 하버드 학생들을 지도하듯이 많은 준비를 하여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실질적으로 명성에 비해 많은 제한을 주는 대학이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의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다. 이런 점이 오늘날 하버드가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보다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력서도 미리 정리해 놓고, 원서에 들어갈 에세이도 열심히 써왔다. 11학년 말에 쳤던 SAT 점수도 괜찮게 나와서 다른 동기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사실 원서는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아프다. 더 다듬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마감 날짜보다 일찍 보내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빨리 보낸다고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미리 보낸다고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학생의 열의에 감동해서 가산점을 주지도 않는다. 특히 명문대에서는 아무리 많은 원서가 쌓여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상대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서가 도착한 순서대로 우편함에 쌓일 뿐이다. 조기지원(Early Decision) 제도가 정시지원(Regular Admission)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마감기한보다 더 미리 보낸다고 특혜를 받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의 조기 지원 마감은 11월 1일, 정시 지원 마감은 1월 1일이다. 여름 방학이 끝나면서 Common Application과 프린스턴 대학교의 supplement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에세이를 후다닥 써서 제출한다고 해도 조기 지원이라면 11월 1일까지 제출된 다른 원서와, 정시 지원이라면 1월 1일까지 보내진 원서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즉, 원서를 무조건 빨리 보내는 것보다 시험 점수, 에세이 등 모든 요소를 다듬고 준비해서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교라면 말이다.

미국의 대학 입시엔 조기지원과 정시지원 외에도 한국의 '수시 지원 제도'에 해당하는 Rolling Admission이 있다. Rolling admission, 롤링 입학 제도는 정시지원이나 조기지원과 달리 정해진 원서 마감일이 없다. 그렇다 보니 정시 지원 마감일이 모두 끝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불합격 발표가 난 후에도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롤링 입학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롤링 입학 제도가 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름 그대로 원서가 접수되는 순간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지원 학생을 평가하고 입학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우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보다도 빨리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학교가 정한 합격생 수가 다 차면 해당 학교의

입시가 끝나는 것이다.

지원 마감일 없는 롤링 입학 제도를 입시 정책으로 채택한 대학교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 지원 학생 수가 워낙 많은 대형 주립대학교라면 수많은 원서가 한 날짜에 몰리지 않게 롤링 입학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저지 주립대인 Rutgers University나 뉴욕 주립대인 Stony Brook University, 인디애나 주의 공립대학교인 Purdue University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학교 모두 종합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드는 훌륭한 대학이고,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공도 있는 만큼 특정 직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부지런히 준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퍼듀의 공대(학부 공학부 랭킹 9위)는 코넬이나 프린스턴의 공대보다 더 높게 쳐줄 정도다. 이 외에도 경영대만큼은 8위에 랭크된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캘리포니아의 미대인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경영대와 공대가 유명한 40위권의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모두 롤링 입학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혹자는 롤링 입학의 지원 적기는 여름방학 직후라고도 한다. 롤링 입학 제도의 특성상 다른 지원자들이 몰리기 전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11학년 때 AP 과목 등의 어려운 수업을 많이 이수하고, 성적도 좋은 학

생이라면 롤링 입학 제대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 일찍부터 지원해 미리 Safety acceptance를 받아 놓는 것도 훌륭한 입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른 학교들의 정시 지원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 Safety school에서 합격 발표를 받는다면, 원래 목표로 하는 학교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롤링 입학 정책을 택하는 많은 학교들 중에는 빨리 지원할수록 장학금 등의 지원을 더 잘 해주는 경우가 많다. 즉, 원서 마감일 자체는 없지만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선 언제까지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Priority deadline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퍼듀 대학교나 스토니 브룩 대학이 모두 해당 학교의 Priority deadline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롤링 입학 제도는 여러 방면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학교의 마감일이 끝나고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에세이를 다듬고 있을 때 미리 합격 발표를 받아 볼 수도 있다. 도구는 쓰는 사람 나름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